1998. 9. 15 창간

Vol. 210

춘천성시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운동 매거진



특집 교회같은 거룩한 가정, 가정 같은 사랑의 교회
성시회 우리나라 이슬람 실태와 선교
선교 2016 AZUSA NOW를 다녀와서
시사 김진태 국회의원 당선자의 각오
인물 신승택 장로 (JDM)
건강 대장암과 당뇨병에 관하여

2016
05

2016 Summer

주니어 쥬빌리 청소년 통일캠프

"앉은뱅이였던 자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도행전 3장 8절

DOWNLOAD 은혜 PLAY 통일



2016. 7. 25(월) ~ 28(목)

한동대학교

선착순 1,000명

회비 3박4일 75,000원

(조기등록 시 할인혜택 문의)



다니엘김 선교사



김성원 목사



신상태 선교사



J.W.M.

** 탈북청소년 및 미자립교회는 참가비 일부 지원됩니다. 문의해주세요.

캠프 설명회 요청 또는 참가 문의

010-8505-3975(윤성중 목사), 010-4458-0100(백형열 목사)

010-3891-1027(조희조 목사), 070-4069-0678(쥬빌리 사무국)

홈페이지 www.jubileeuni.com (참가신청 작성 및 문의 게시판)



아름다운 동행

김용성 I OIL ON CANVAS I 20호 s (60.6 X 60.6 cm) I 2014

포도나무에 가지가 착 붙어 있는 삶,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신 삶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불신 남편에게 핍박받던 한 여 집사님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어느 교회에 들어가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마침 그 교회에 걸려 있던 제 그림 속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 아름다운 동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결국 이혼을 포기하고 도리어 남편을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고, 드디어 남편은 전도되어 이제는 함께 교회를 다니며 부부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답니다. 그림을 통해 남편을 사랑으로 인도한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부부의 아름다운 동행에 도움이 돼서 참 감사했습니다.

창간 1998. 9 .15 | **발행인** 대표회장 김창환, 본부장 차덕수, 사무총장 이병철
편집장 최영조 | **편집위원** 김영명, 김춘배, 이관형, 이연희, 이영규, 이은정, 이병철, 조영춘, 최상도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주소** 춘천시 금강로 120 강원CBS 3층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전화 T. 033.256.1260~1 F. 033.257.1260 | **이메일** holycc1972@hanmail.net | **Design** 로딘어스

CONTENTS

2016. 05 Vol. 210







커버스토리	아름다운 동행	01
Editor's Note		03
5월 캘린더		04
특집	교회 같은 거룩한 가정, 가정 같은 사랑의 교회	06
성시화	우리나라 이슬람 실태와 선교	09
선교	2016 AZUSA NOW를 다녀와서	14
통일	욥의 고난에서 통일의 축복을 보라	18
예향/만평	못 자국난 손 / 당신은 모태신앙인가?	21
다음세대	4/14 윈도우 지도자 세미나	22
기관탐방	춘천 내 중 · 고교 기독동아리를 소개합니다	26
시사	김진태 국회의원 당선자의 각오	30
인물	현대 한약방, 처방전 카페 신승택 장로	32
예수안에서 본 예술	SWEET CAILA	37
칼럼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	38
쉼한편	새벽기도	40
설교	싯딤나무	41
예수의 미소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42
영화이야기	노블	44
건강이야기	한국인에게 증가하고 있는 대장암과 당뇨병에 관하여	46
음악이야기	쇼스타코비치 - 혁명	48
알려드려요		50
4월을 돌아보며		52
후원자 명단		56

Editor's Note

현대를 가리켜 가치관의 혼돈시대라 한다. 사람보다 기계가 더 위력있고 신기할 정도로 바쁘게 처리하는 것을 보면 깜짝 놀라게 한다. 그 앞에서 사람들은 무력해져서 기계가 주인인지 사람이 주인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인간은 한계와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가치관이 흔들린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기계나 컴퓨터가 대신하는가 하면, 사람은 더딘데 비해 기계는 신속하고 정확하다. 그래서 기업주는 이런 기계 하나를 들여놓고, 일 잘하던 종업원들을 가차 없이 감원한다. 그 종업원 가정의 생계가 어떻든, 가정의 자녀교육이 어떻든 상관없다. 기업주의 마음에는 어느새 소자본으로 큰 이익을 얻기 위하여 기계의 가치를 사람보다 위에 둔다.

또 한편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 대화로 문제해결이 안 될 때 돈뭉치를 주면 문제가 해결된다. 인간관계가 돈으로 해결되는 황금만능주의 시대가 벌써 깊이 뿌리를 박고 있다. 대학입학, 취직, 정치, 결혼 등 모두가 다 돈이면 해결된다는 식이다. 이렇게 가치관이 기계문명과 황금만능주의로 흔들릴 때일수록 우리의 가정은 부모가 자녀에게, 또 가족들 간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관을 바로 심어 주어야 한다. 만약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면 기계문명과 물질은 오히려 인간사회를 파괴하고 악한 사회로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끔 점점 영악스러워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해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걱정이다. 더 많은 규칙과 규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로 잡아 보려고 하지만 율법은 사람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아이들은 율법 앞에서 정죄감과 죄책감을 느끼고 공동체의 품을 떠난다. 학교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조건적인 사랑에 저들이 무력감을 느낀다면 어디에 마음을 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고 받아주고, 한참 부족하고 눈에 안차도 오히려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녹일 것이고, 은혜가 닫히고 꼬인 마음을 풀게 할 것이다. 가치관이 혼란해 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해 보자.

편집장 최영조

2016 5

· · 이달의 말씀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시편 128편 3~4절

· · 이달의 기도제목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SUNDAY	MONDAY	TUESDAY
1 근로자의 날	**2** • 춘천장로연합회 정기 월요기도회 오전 6시30분, 감사장로교회 • IVF 연합리더모임 춘천IVF회관	**3** • 어린이전도협회 새소식반강습 오전 10시, 오후 7시, 춘천지회 • 통일기도모임 오후4시, 주향교 • CCC 여름수련회의 밤, CCC회관 • 홀리클럽 일본 대마도 여행 ~4 •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매주 오후7시, 동부교회
8 어버이날	**9** • 쥬빌리 53차 춘천모임 오후 7시15분 주향교회 • IVF 통일기도주간 ~13일	**10** • 춘천성시지도자모임 오전7시, 옛날맛해장국 • 통일기도모임 오후4시, 주향교회 • 이스라엘선교학교 오후7시, 거성교회 •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매주 오후7시, 동부교회
15 스승의 날	**16** 성년의 날 • 예수전도단 말씀세미나 ~18일 "배경으로 읽는 보약성경" 오후 7시, 나눔성결교회	**17** • 통일기도모임 오후4시 ,주향교회 • IVF EF전도집회 • 이스라엘선교학교 오후7시, 거성교회 • 음악과 강연의 밤 오후7시, 강원대학교 백령문화
22 • 기드온 순방예배 오전11시 신철원제일교회	**23** • 통일광장기도회 저녁8시 석사교하천무대	**24** • 통일기도모임 오후4시, 주향교회 • 이스라엘선교학교 오후7시, 거성교회 •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매주 오후7시, 동부교회
29 • MCF 군연합찬양제 오후3시30 순복음춘천교회 • 춘천장로연합회 오후2시 순방헌신예배 춘천장로교회	**30**	**31** • 직장선교회 연합예배 정오 동부교회 • 강기총 정책세미나, 오후2시 • 통일기도모임 오후4시, 주향교회 • 이스라엘선교학교 오후7시 거성교회 •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매주 오후7시, 동부교회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4 기사선교회 정기예배 오전 11시,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선 성시 편집회의 오후2시 JDM ~5일 춘천지구 리더의 밤	**5** 어린이 날	**6**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조찬이사회 오전7시 • 기드온 조찬기도회 매주 금 오전 7시, 미가식당	**7** • 춘천소년원 소망선교회 어버이날 행사
11 IVF 강원지역 연합간사모임 원주IVF회관	**12** • CCC 매주 목 오후7시 연합채플	**13**	**14**
18	**19** • CCC 매주 목 오후7시 연합채플	**20** • JDM ~21일 전국TTS(디모데훈련학교) 수련회 논산 삼천리교육원	**21** 부부의 날 • 춘천9기부부학교 ~ 6 / 11 4주간 강촌감리교회 • 예스컴예스컴프레이즈 오후 6시 드림성결교회
25	**26** • CCC 매주 목 오후7시 연합채플	**27** • 기드온 춘천캠프총회 오전7시 미가 • 기사선교회 정기예배 오전 11시, 춘천제일감리교회	**28** • 자녀교육특강 오후 2-5시 거성교회 • 춘천51기 아버지학교~6/25 5주간 석사교회 • 예스컴 청소년리더훈련 오후7시 예스컴센터

행사 일정 등록 문의 033) 256.1260 / holycc1972@hanmail.net



교회 같은 거룩한 가정, 가정 같은 사랑의 교회

글 / 최상도 목사(사암성결교회, 춘천성시 편집위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유일한 두 기관은 "가정과 교회"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릭 워렌, 「목적이 이끄는 삶」). 다른 것은 다 인간이 만든 것이다. 학교도 정부도 상공회의소도 심지어 국가조차도 사람이 만든 기관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에덴동산을 주소지로 하는 아담의 가정을 만드셨고,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만드셨다. 이것의 최종적 그림은 물론 천국이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가정과 교회가 지금 큰 위기가운데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주님의 임재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몰려오듯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진 가정과 교회는 어두워지고, 길을 잃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

가정과 교회를 통합하라

우리가 진학, 사업, 출세 등 다른 데에서는 실패하더라도 가정과 교회에서는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다. 가장 불쌍한 존재는 깨어진 가정에 남아 있는 일원이고, 깨어진 교회에 남아 있는 교인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시며 기뻐하신다는 상징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피 흘려 몸 버려 죽으시고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주님이 참으로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가정과 교회를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는 없을까? 아니 더 나아가 가정과 교회를 통합할 방법은 없을까? 이에 대한 고민으로 나온 대답이 바로 21세기 대유행(?)을 맞이하고 있는 가정교회 운동이다.

가정중심의 구속사

가정교회를 좀 더 성경의 역사를 통해 고찰해보자.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실 때 노아 혼자만이 아니라 노아의 가정 전체 8명을 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 이들은 방주 안에서 가족공동체를 이루었다. 세월이 흘러 다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할 즈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출신의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신다. 이 실낱같은 가정공동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이어지는데, 야곱 가족이 결국 애굽으로 건너가 12지파라는 커다란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이들은 넓은 의미의 가족공동체로 하나되어 가나안땅을 정복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게 된다.

2000년 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추구하신 가족공동체는 어떤 가족공동체인가? 혈연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적 가족 공동체였다. 예수님의 첫 이적인 가나혼인잔치와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하나가 가족공동체의 회복임을 나타내 주셨다.

이러한 맥을 이어 최영기 목사(미국 휴스톤교회 원로목사, 국제 가정교회사역원장)가 주창한 가정교회 운동은 초기교회의 회복이요, 성서적 교회의 회복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초대교회는 시작부터가 가정교회였다. 성도들은 가정교회에 모여 식사하고 주의 만찬을 나누고 찬송하였다. 가정교회는 그저 말뿐이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서로를 사랑했다. 이 공동체는 가정에서 모이는 "가족 같은" 모임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었다. 로버트 뱅크스가 「바울의 공동체 사상」(IVP)에서 주장했듯이 "바울, 아볼로, 게바에게 속하였다고 하는 사람들의 분쟁은 고린도에 각기 다른 사도의 사역에 힘입어 설립된 여러 가정교회들"의 문제였다. 이들은 최소 2세기동안 계속 모임을 가졌고, 많은 가정집들이 모임의 장소로 개조되었다. 잘못된 변화는 3세기 말엽부터 일어나는데, 교회는 로마의 바실리카를 본떠 예배 처소를 만들기 시작

하고 예배의 중심이 성전으로 이동함에 따라 주의 만찬은 공동식사에서 성찬예식으로 바뀌었다. 떡과 포도주는 과장되어 당시 이방종교 희생 제물의 화체설에 그대로 영향을 받아 사제들에 의해 "불멸의 묘약"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가정교회의 상실은 루터가 종교개혁의 비교적 초기에 가정교회의 회복을 갈망하면서 다시 교회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가정교회 공동체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중요한 흐름이 최영기 목사의 가정교회운동이다.

부부,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정교회



현재 최영기 목사가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가정교회는 일주일에 1번 모이는 구역예배나 속회와 비슷하지만 그 영향력은 초대 가정교회의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가정교회는 다음과 같이 모인다. 4-5가정이 함께 모이는데, 자녀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인다. 함께 저녁을 의무적으로(?) 먹고, 어린이들은 "올리브 브레싱"이라고 불리는 순서를 먼저 가진다. 함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찬송을 몇 곡 부르고, 한 주간의 감사의 제목을 부모들 앞에서 나눈다. 기도제목까지 나눈 후에는 부모들의 축복기도를 받는다. 2부 순서는 어른들끼리의 시간으로 주중에 읽었던 말씀과 서로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 마무리는 중보의 기도와 함께 모든 가정교회는 선교지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선교지를 축복하며 드려진 선교헌금은 선교지와 해당 후원선교사에게 보내진다. 슬쩍 보기에는 이상의 내용들이 일반적인 내용 같으나 가정교회의 모임은 어떤 기관모임보다도 강력하다. 교회 산하의 기관이 아니라 가정교회 자체가 작은 교회이다. 이를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목자라고 부름)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목자는 독립의 리더십을 인정받는다. 가정교회에는 뜨거운 말씀이 있으며, 회개가 있고, 가족공동체의 하나 됨이 있다.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치유와 회복, 기적이 자주 일어난다.

최영기 목사의 가정교회운동에 참여하는 교회는 전국적으로 2천여 개의 교회가 넘는다고 한다. 이들 가정교회를 돕고 있는 가정교회사역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의 모든 교회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과 교회가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것이다.

가장 큰 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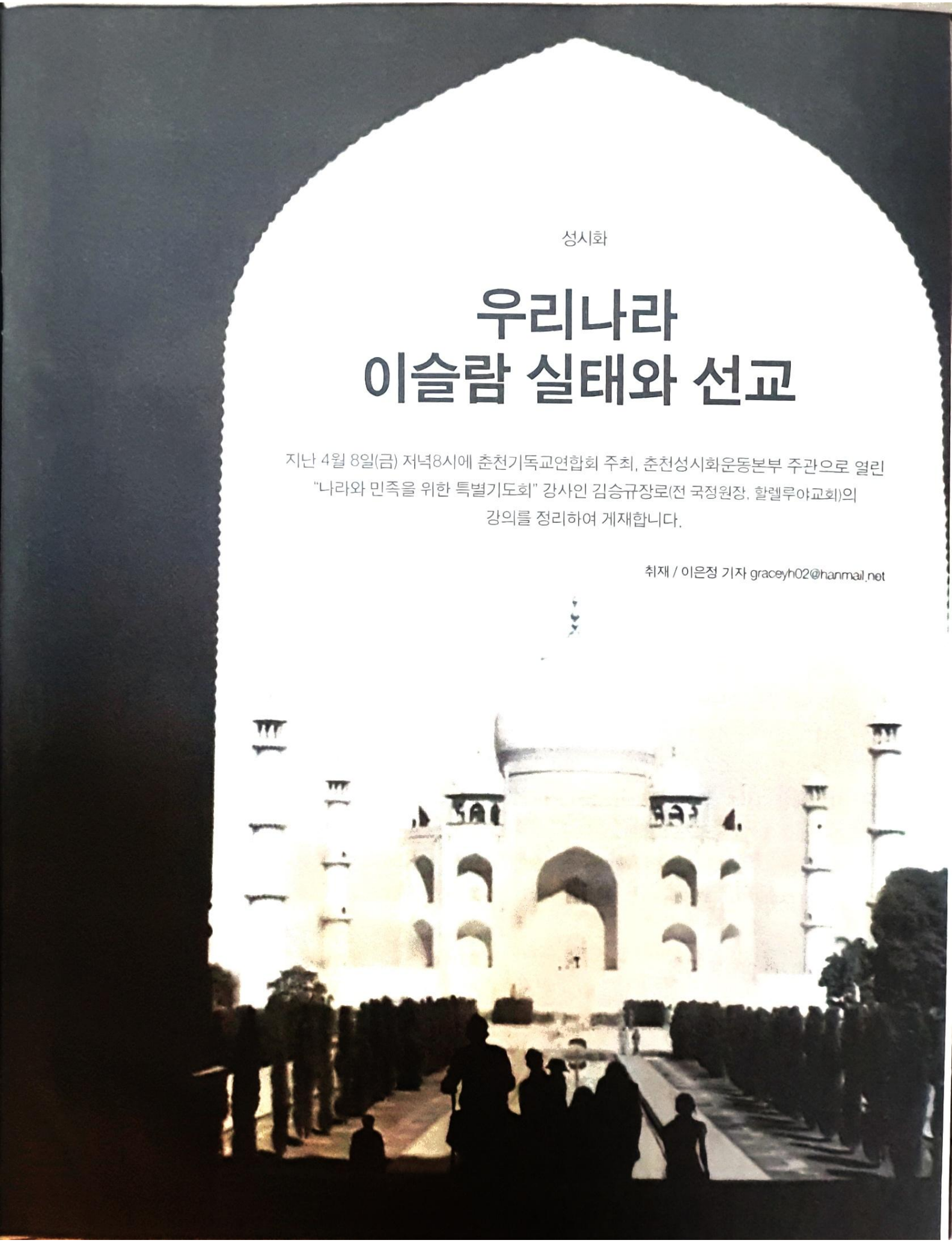
일찍이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상이요, 축복이다"라고 하였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와 같은 거룩한 가정, 가정과 같은 사랑의 교회를 꿈꾼다. 꿈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성시화

우리나라 이슬람 실태와 선교

지난 4월 8일(금) 저녁8시에 춘천기독교연합회 주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기도회" 강사인 김승규장로(전 국정원장, 할렐루야교회)의 강의를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취재 / 이은정 기자 graceyh02@hanmail.net



이슬람 문제에 대해 고려할 점이 2가지가 있다.
첫째는 국내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국가 안보 문제이다.
이를 위해 이슬람의 실체와 전략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슬람의 개관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인구는 16억(기독교 23억)인데 2050년이면 기독교와 같아지고, 2070년이면 이슬람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OIC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이슬람회의 기구에 가입한 이슬람국가는 56개국이다. 이슬람 분파로는 선거로 지도자를 뽑는 순니파가 85%로 IS(Islamic State), 사우디 아라비아등이고, 마호메트계인 시아파는 15%로 주로 이란, 이라크, 시리아가 있다. 이슬람은 정교 일치 체제인 법으로 종교를 뒷받침하는 즉, 샤리아(이슬람법)로 통치하는 국가이다. 이슬람의 구원관은 행위구원관(천칭구원론)으로 선행과 악행 중 선행이 더 많으면 구원받는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이슬람 실태

우리나라에 무슬림(이슬람을 믿는 사람)은 19만명이다. 그중 불법 체류자가 24,300명이고, 내국인이 35,000명이다. 2003년부터 8년간 테러위험인물 추방자가 130명이었다. 무슬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경기도로 30.5%(33,335명)이 거주하고, 강원도에는 1.2%(1,489명, 강릉대 111명)이 거주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모스크는 15개, 이슬람센터 2개, 예배공동체인 무쌀라 101개, 이슬람학회 4개, 연구소가 7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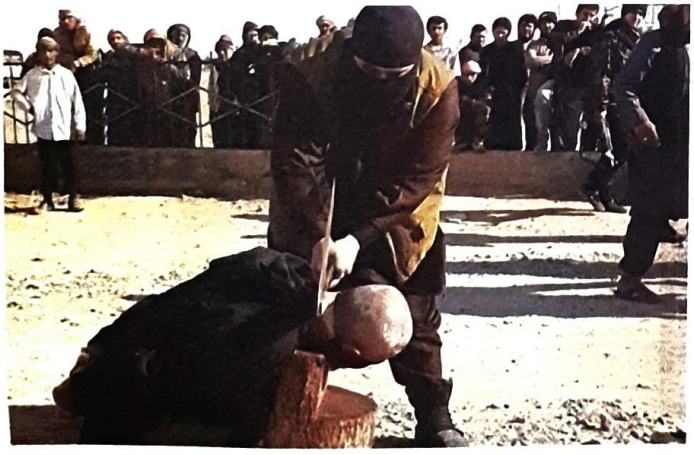
우리나라 제2외국어 수능시험에 아랍어가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가르치는 학교가 없는데도 수능시험 과목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다. 정부에서 할랄 푸드 전용단지 조성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이는 트로이 목마와 같다. 테러에 대한 이슬람의 주장은 "IS는 이슬람이 아니다"라는 거짓 주장을 한다. 도리어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하는데 이는 그들의 교리인 타키야(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인가?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말한다. 그런데 왜 사람을 죽이는가? 이슬람은 꾸란의 폐기된 평화 구절들을 내세운다. 꾸란 해석의 원칙은 만수크 원칙인데, 이는 "꾸란에서 서로 상충되는 내용의 구절이 있을 때









는 이전 계시는 나중 계시에 의해 자동으로 폐기된다."이다. 즉 평화의 종교라는 말은 폐기된 구절이다. 그런데 타키야(속임수) 교리를 적용하여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설명한다. 꾸란8:38~39절에 의하면 "~종교가 온전히 알라만의 것이 될 때까지 지하드하라~", 꾸란9:5~11에는 "~불신자들마다 살해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거나 포위할 것이며~", 꾸란16:106에는 "~불신에 대해 마음을 열어 놓는 자들에게 알라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주요 이슬람 테러 단체

미국무부가 지정한 전 세계 테러단체가 59개 (2014년 말)가 있다. 그 중 45개가 이슬람 테러단체인데, 조직과 자금을 갖추고 극렬 활동을 하는 단체는 5개이다. 극렬단체로는 ① IS(Islamic State 이슬람 국가) : 이들은 순니파, 칼리파가가 통치하는 새로운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선포했다. ② 알카에다 : 이슬람 원리주의와 반미, 반 유대 표방, ③ 탈레반 : 샘물교회 사건과 연계된 조직, 아프간 남부에 거주하는 무장조직. ④ 보코하람 :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로 보코(서양식 교육은)하람(죄악이다)라고 배척한다. ⑤ 헤즈볼라 : 레바논에 기반을 둔 시아파 이슬람 무장 조직이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들

9.11 테러이후 14년간 이슬람 무장단체가 행한 테러로 사망 161,663명, 부상 238,161명이다. 2012~2014년까지 8,000여건 이상의 테러가 발생했다.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한 대표적 이슬람 테러와 폭동은, 9.11 테러(2001.9.11. 공식 사망자수 2,996명), 영국 런던

지하철 폭탄테러(2005.7.7. 52명 사망, 1,000여명 부상),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폭탄 테러(2014.3.11. 191명 사망, 1,800여명 부상), 프랑스 무슬림 폭동 발생(2005.10.27.~11.17. 1명 사망, 115여명 부상 외), 프랑스 샤를리 에브도 테러(2015.1.7. 12명 사망, 10명 부상), 프랑스 파리 테러(2015.11.13. 132명 사망, 349명 부상), 러시아 항공기 테러(2015.10.31. 224명 전원 사망), 레바논 베이루트 테러(2015.11.12. 43명 사망, 237명 부상), 바그다드 IS테러(2016.2.28. 87명 사망, 100여명 부상), 벨기에 테러(몰렌베이크는 10만명 인구 중 1/3이 이슬람이고, 테러를 가르치는 곳이다.)







아시아의 테러 사건

인도네시아 JI(제마 이스라미아) 순니파 무장 테러 단체, 발리 테러(2002.12. 202명 사망, 303명 부상), 태국 (2004년부터 10년간 15,192건 폭력 사건 발생으로 5,962명 사망), 인도 뭄바이 테러(2008.11. 188명 사망, 293명 부상), 필리핀 민다나오(인구 2400만명 중 무슬림 480만명), 파키스탄 테러(48년 독립 후 15년말까지 6만여명 테러로 사망, 최근 5년간 5,414명 사망), 인도네시아 IS 테러(2016.1.14. 8명 사망).

이슬람은 왜 테러를 하는가? (6가지 이유)

① 자신들이 통치하는 집이란 의미의 "평화의 집", "전쟁의 집" 개념이 있다. ② 살상, 테러, 폭력을 지시하는 구절이 꾸란에 164구절이 있다. (꾸란 47:4 "~불신자를 만났을 때 완전히 학살할 때까지 그들의 목을 쳐라~", 꾸란 8:60 "~군대와 말로써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에게 대항할 준비를 하라 그것으로 알라의 적과 너희들의 적들과 그들 외의 다른 위선자들을 두렵게 하라") ③ 지하드 하라! (꾸란8:39 "~종교가 온전히 알라만의 것이 될 때까지 성전(지하드)하라 싸워서 죽이라~") ④ 이슬람의 구원관 – 천칭구원론. 알-티르미지 하디스(무함마드 언행록) 3834번 "순교자는 크고 검은 눈을 가진 처녀들 72명을 부인으로 맞이하여 결혼하며 그의 친척 70명을 위하여 중보자

가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⑤ 온 세계는 모스크다. 그러므로 모스크 안에 다른 종교의 건물이 들어설 수 없다고 한다. ⑥ 모스크에서 무함마드의 모범을 따르라고 한다.

모스크란?(아랍어로 마스지드)

모스크는 무슬림의 모임 장소이다. 또 모스크는 이슬람 교리가 가르쳐지는 이슬람 신학교이며, 지하드를 통해 저항하도록 영적인 훈계와 격려를 전달하는 설교 장소이다. 그리고 지하드 수행을 논의하고 지시하며 지휘관이 임명 되는 장소로, 이 곳에서 이슬람 대표단이 파견되고, 지하드가 선포되며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무슬림 군대가 파견된다. 즉 모스크는 무함마드의 모범을 따라 종교적, 교육적, 정치적, 군사적 기능과 역할을 하는 장소이다.

이슬람 전파를 위한 기본원칙들

① 지하드 : 지하드는 무슬림의 임무(꾸란8:39)이다. 말, 설교, 선포, 논쟁대화를 통한 지하드, 집필 언론 출판, 미디어를 통한 지하드, 이주를 통한 지하드, 물질을 통한 지하드, 자신의 삶을 통한 지하드, 자살 폭탄 임무처럼 생명을 드려 수행하는 지하드가 있다. ② 헤지라(이주) : 지하드를 위한 준비 단계이다. "알라가 네게 명한 다섯 가지를 너희들에게 다시 명한다. 모여라 들으라 순종하라 이주하라 지하드하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무슬림들은 44곳에 뭉쳐 살고 있고, 이맘이 탐킨(강화훈련)을 한다. ③ 타가야 : 속임수 교리가 전파의 기본원칙이다.

결론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본보기는 영국과 유럽의 이슬람화이다. 영국에서는 교회 3,000개가 팔리고 십자가 대신 초승달을 달았다. 영국 언론인 메라니 필립스는 "영국이 망해가고 있다."라고 했다. 프랑스 언론인 에릭 제무르는 "프랑스의 자살"이라고 했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유럽 역사학 교수 부르스 손턴은 "유럽이 서서히 자살해 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다문화 정책의 재고가 있어야 한다.(프랑스의 자살: 에릭제무르 저, 2015.1)

호주에서는 프레드 라일 의원(기독교민주당 대표)이 국회로 들어가 이슬람화 저지에 적극 헌신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다. 일본과 중국의 이슬람에 대한 정책을 보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안 받아들인다. 중국은 이슬람이었던 신장 위구르에 있던 소수민 1800만을 중국내로 흡었고, 그곳에는 중국인이 70%가 되도록 채웠다. 이와 같이 국가적인 안보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무슬림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에, 위성방송, FM방송, 인터넷 채팅으로 전하고, 무슬림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외국 사람들을 초청하여 선교교육도 해야 한다. 영국교회에서는 중보기도자 500명의 기도로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무슬림 3,400명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슬람의 전략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지혜롭고 순결한 대처를 하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략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2016 AZUSA NOW"를 다녀와서

글 / 이병철 목사(주향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아주사 부흥 110주년 맞아 1984년 LA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이었던 콜로세움에서 다민족연합기도회가 4월 9일(토)에 있었다. 56개국에서 참여한 10여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오전 7시부터 시작하여 저녁 10시30분까지 장장 15시간 30분 동안이나 미국과 전 세계 열방에 부흥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하루 종일 배가 내리다 멈추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10여만 명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그 때" 있었던 부흥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부터" 다시 부흥이 임하도록 갈망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이었다.

1906년에 있었던 아주사 부흥은 갈급한 심령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로 시작된 작은 기도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무명의 한 흑인이었던 시무어 목사가 인도하는 작은 집회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서 아주사 거리 전역을 뒤덮었다. "죄용서, 성화, 성령세례, 그리고 신유를 갈구하는 구도자들에게 성령 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너무도 강력하여 사람들이 고꾸라져 전 도시가 요동하였다"고 한다. 이 부흥은 아주사를 넘어서 1931년까지 지속되면서 미국의 대부흥을 가져온 근대에 일어난 가장 강력한 부흥이다. 이 영향으로 인해 오순절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번지게 되었다. 1907년 평양 대부흥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떠나온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이다. 기독교 정신이 국가 경영과 사회의 저변에 흘러왔지만 21세기 들어서면서 세속화의 급속한 물결에 기독교의 가치가 크게 도전과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 단적인 예가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판결과 미국 교회 교단 중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4월 9일, 아주사 부흥 110주년을 기념하여 다시금 이곳에서부터 미국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간절히 열망하는 다민족연합기도회가 열린 것이다.

아주사 나우(AZUSA NOW)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합기도회는 '더 콜(The Call)' 대표 루 잉글 목사가 주도했다. 루 잉글 목사는 미국의 부흥을 위하여 지난 30여 년 동안 기도와 금식의 세월을 보내왔으며, 무엇보다도 1906년 아주사보다 지금이 더 강력하고 폭발적인 부흥이 임할 것을 기대하며 지난 3년 전부터 이 콜로세움에 다민족이 하나가 되어 부흥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비전을 갖고 기도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콜로세움을 임대하는데 300만 달러의 큰 비용이 드는데,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인 부흥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헌신이라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여 자신의 집을 팔아 130만 달러를 헌금을 드렸다고 한다. 한 사람의 헌신이 씨앗이 되어 AZUSA NOW가 열리게 되었고, 결국 전체 비용은 집회에서의 헌금과 홍콩의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다 채워지고도 남았다고 한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백성들의 간구를 결코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나타내셨다.


루 잉글 목사(The Call 대표)

4월 9일(토) 콜로세움의 현장은 새벽부터 그 열기가 대단했다. 집회는 오전 7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가 도착한 새벽 6시에 이미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콜로세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찬양하며 구호를 외치는 모습은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아직 미국이 살아 있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 정도였다.

다민족연합기도회는 제일 먼저 오전 7시부터 한 시간 동안에 한인교회 목회자와 장로 등 110명이 강단에 올라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막을 올렸다. 루 잉글 목사님은 이 집회의 첫 기도인도를 한인 교회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이것은 한인들과 한국 교회의 기도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한인 연합찬양팀의 찬양인도에 이어 신승훈목사(대회장, 주님의영광교회)는



AZUSA NOW 기도회의 첫문을 연 한인교회 목회자와 장로



자신의 신발을 벗어들고 선교 헌신을 하는 참석자들



아주사 나우(AZUSA NOW)에서 기도하는 모습



환영사에서 "미국은 13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을 전해 준 고마운 나라"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짧은 기간에 한국 교회는 가장 큰 부흥을 이루었고, 6.25 동란으로 위기 가운데 기도로 공산주의로부터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또 "한인교회들이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국의 부흥을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하고 참석자들에게 "주여!, 주여!, 주여!"를 세 번씩 외치고 기도하자고 제안하며 함께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뜨겁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였다.

한인기도회에서 제일 먼저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다시 임하기를 기도로 시작하여 전 세계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간구하는 다섯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씩 집중적으로 기도했다. 특히 북한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부어주실 것과 한국에 다시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을 위해 전 세계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는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계속되는 기도회는 다민족간의 치유를 위해, 유대인 크리스천의 기도 인도, 56개국 나라에서 온 대표들이 인사말을 전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아프리카 등에서 온 참석자들은 각각 그 나라의 전통 의상과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열기를 더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설교자의 도전에 따라 자신의 신발을 벗어 들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겠다는 선교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빌 존슨 목사님의 인도로 치유 집회가 있기도 했고, 세계적인 부흥사인 콜렌다 목사의 전도 메시지와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찬양하며 마무리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린 기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잘 모른다. 그러나 성도들의 기도를 금대접에 받아 하늘 보좌로 올려 흠향하시는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와 뇌성과 지진으로 우리가 생각하거나 예측하지 못하는 기이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이미 기도하는 당일에도 비가 오다 말다하는 시간을 반복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주변에 많은 비가 내린 반면에 콜로세움 안에는 부슬비 정도가 내려 기도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였으며 도리어 선선한 가운데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다.

내년 2017년은 평양대부흥 110주년이 되는 해이고,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이런 역사적인 카이로스 타임에 한국교회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도시마다 성시화가 이루어지고, 복음적 평화통일의 물고가 뜨이고, 세계 열방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여 세계선교를 마무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염원한다. 평양대부흥의 진원지가 원산이었듯이 한반도의 대 부흥이 성시화의 본고장인 춘천에서 시작되어 소양강이 흘러가듯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흘러가길 기대해 본다.

욥의 고난에서 통일의 축복을 보라!

글 / 박상원 목사(기드온등록선교회)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춘천모임 52차 강사





오래 전, 일했던 병원에서 담당병동을 체인지하는 일이 있었다. 좀 멀설였던 중환자실이었다. 방문 첫날 나는 먼저 환자명단을 체크했다. 맨 밑줄의 여자환자 이름 옆의 입원일수에 너무나 놀랐다. - "3,650일" - 10년 하고도 한 달여의 세월이 아닌가! 수간호사에게 그 사유를 물었더니, 10년 전, 첫 아이를 분만하다 그만 중추신경이 끊어져 그날로 지금까지 전신마비로 있다는 것이다. 나는 한 순간 멍해졌다... 그럼 지금 누가 돌보고 있어요? 한 2년여 동안은 많은 이들이 찾아왔지만 지금은 찾아오는 분은 딱히 없고...어느 목사님(후에 알고 보니 남편 친구의 동서) 한 분이 6년 전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찾아오고 계시죠... 그 이후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그 날부터 한 4년 동안 찾아가 말동무를 하며 지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한 세 가지 기도제목도 만들어 보았다. 첫째, 병원 예배실에 가서 회중예배 한번 드리는 것(여러 의료기구 부착으로 거의 불가능). 둘째는 사랑하는 아들이 대학생이 되기 전에 "엄마"하며 찾아와 주는 것. 그리고 비록 자신의 곁을 떠났지만 그녀에게 목사님을 보내준 남편을 죽기 전에 한번 보게 해 달라고... 그러던 중에 내가 외국엘 가게 되었다고 인사를 갔다. "저는 이만 갑니다만, 세 가지 기도는 계속해서 할께요..."하며 나는 작별을 고했다. 그녀도 나에게 천천히 말을 건네 왔다. "...모 목사아님, 나아는 이 세에 사앙에 끄으치 이제 해앵 보옥 캐에요..."

세상의 모든 관계(인간, 물질, 하나님관계)가 끊어진 그녀가 분명히 행복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만약 지금 세상이 끝난다고 하면 매우 두렵고, 낙심이 되어 "행복해요"라고 못 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모은 내 돈인데, 어떻게 키운 자식들인데, 어떻게 이룬 내 업적인데!' 라며 안절부절 할 우리들이 아닌가?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과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도저히 받아 드리기가 어려운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그녀는 행복하다니...!!! '얼마나 밤마다 몸 소리치며 울부짖었을까! 내 인생 이게 무엇입니까! 얼마나 긴 세월을 아들과 남편의 이름을 불렀을까? 차라리 결혼이나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누워 숨만 쉬는 목숨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가족도 남편도 오히려 마음에 큰 상처와 부담이 안 될 텐데,..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신가요? 도대체 내가 뭘 잘 못 했길래..???' 수도 없이 울며 불며 하나님에게 외쳤을 것이다. 그런데 그녀가 "행복하다"니, 이 고백을 단지 세월이 무수히 흐른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던진 그 어떤 고난의 질문은 그가 우리와 만나주기만 하면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고, 이 세상의 논리로 갇혀있던 것을 뚫고 원래의 본연(인간창조의 본 뜻)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던졌던 질문 자체가 아예 소멸되고 더 이상 문제로 있을 수 없게 된다. 세상의 질문에는 답이 있기는 하나, 질문도 여전히 보이고,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어떤 고난의 질문도 존재할 수 없는 무(해소)가 되어 버리고 만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것이어야 하고, 교회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어야 한다.

특별히 통제와 감시 속에서 헐벗고 굶주린 채, 기나긴 고난을 겪는 북녘의 형제들(인간, 물질,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에게 하나님이 만나지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지는 것을 목표로 하면 통일의 방법론과 길은 어렵지만 결국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민족의 고난을 인과론(욥의 첫번째 친구), 정의론(두번째 친구의 논리), 숙명론(셋째 친구의 논리) 등으로 판단하여 우리끼리 충돌하지 말자! 그 어떤 일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그 분의 사랑이 북녘 동포들이 겪는 고난에 찾아 오셔서 만나 주기를 기도하며 이 일을 위해 서로 협력하자!

욥의 고난에 대한 결론이 너무 반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친구들에게 너희들의 고난에 대한 논리들이 옳지 못하다고 꾸중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가서 잘못을 빌라고 한다. 욥이 그 친구들(고난과 통일에 대한 잘못된 논리를 가진 세력들)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전 보다 더 큰 축복을 욥에게 주신다. 통일에는 이러한 용서와 화해가 전제되어야 결국 남과 북에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는다. 이웃나라들은 우리 민족의 이러한 통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보게 될 것이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 지라"(욥42:10)

기드온 동족선교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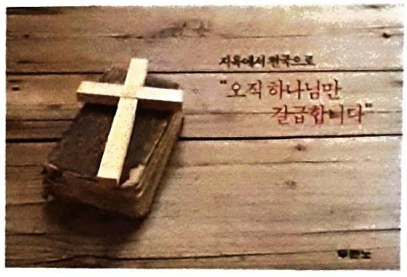
기드온동족선교회(GBMW)의 북녘 주민들과 통일의 이해를 위한 도서안내

1.『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한글판 / 영문판)

– 편자 박상원 목사 / 두란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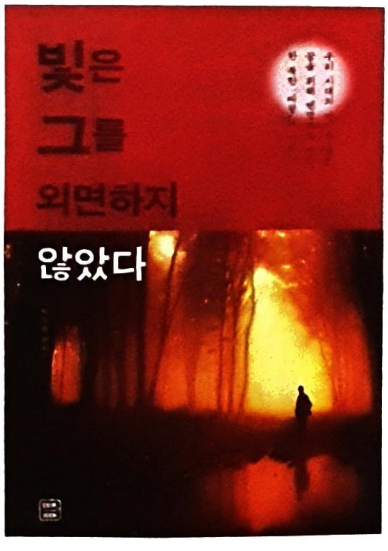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이 있는 동토!
하나님께서 그 땅의 남은 자들을 그루터기로 사용하사 함께 일하시는 지하성도(교회)들! 그들의 고난과 순교를 통해 우리 민족의 완전하고 평화로운 통일이 이뤄져가는 동족의 이야기! 그 중심에 있던 한 형제가 기록한 일기를 통해 생생한 그 현장과 인물들을 지금 만나보십시오!

⊙ **주선애 교수, 오대원 목사, 송정명 총장, 권준 목사 추천**

⊙ **현재까지 1만 2천부 발행**



2.『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속편)

– 편자 박상원 목사 / 렛츠북 –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속편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전편의 감동과 우리의 소망을 더 깊고 크게 전해주고, 다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려고 지금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념과 정치가 아니라, 우리동족들의 실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간절한 꿈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이 책을 통해 지금 가져보십시오!

⊙ **신창민 박사, 유관지 목사, 김영일 교수, 김인식 목사 추천**

전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기드온동족선교회 홈페이지와 아래의 연락처로도 문의/구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역 후원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을 포함한 책의 가격은 [2만원/권당]입니다.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 GBMW미국본부 (1-(425) 775-7477(팩스겸용) 대표 : 박상원 (Rev.Danny Park)

⊙ 한국지부 서울 은평구 연서로4길 7-11. 101호 지부장 : 방한균 목사 010-4610-4955 e-mail gbmwkorea@naver.com

입금계좌 국민은행 417201-01-261357(박상원GBMW) 신한은행 110-186-691798(박상원)

"통일을 위해 하루 한 번 기도, 한 주간 한 번 금식, 한 달에 한 번 헌금, 일년에 네 번 연합기도 드리면 우리도 United Korea"

예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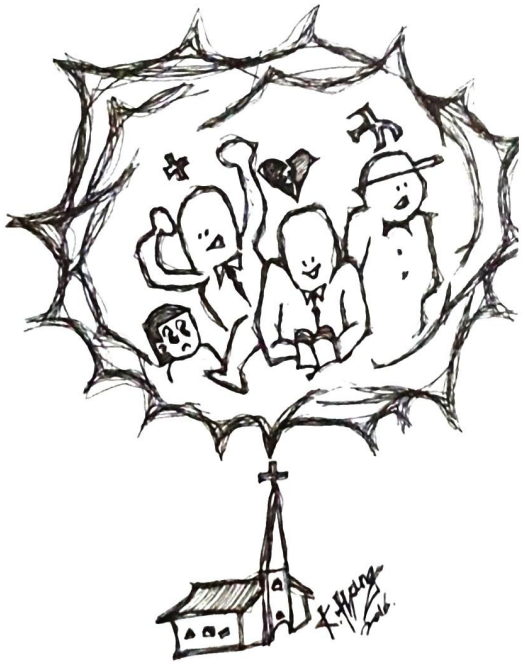
못 자국 난 손

어느 미국 교포 목사님의 설교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교회 등록한지 얼마 안 된 가정이 있었는데, 갑자가 어린 자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성껏 장례를 도와주고 예배하면서 위로해주었는데,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장례가 지난 후에 교회 집사님 한 부부가 이 가정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해주었다고 한다. "우리도 당신과 똑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저희도 한동안 너무나 괴롭고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셔서 말없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저희는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때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위로가 임했습니다. 이제 두 분도 다시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목사님 말씀이 이 부부는 아마도 자기가 여러 달 걸려도 하기 힘든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생각해보면 주님이야말로 세상의 대표적인 고통을 이미 다 겪으셨다. 남편도 모르는 사생자에게 났다는 소리도 들으셨고, 시골 갈릴리 출신이라고 모욕 받으셨고, 가난한 목수라고 조롱받으셨고, 한때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셨고,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비겁하고도 거짓된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 피조물인 인간에게 채찍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며 피 흘리셨다. 이제 먼저 고통당하신 주님께서 못 자국 난 손을 우리에게 내미신다. 그 손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이미 다 겪으신 손이다. 그 손은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슬픔의 눈물도 다 닦을 수 있는 손이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손을 내미신다. 이제 우리가 그 손을 잡아야 한다.

글 / 최상도 기자 saam21@hanmail.net

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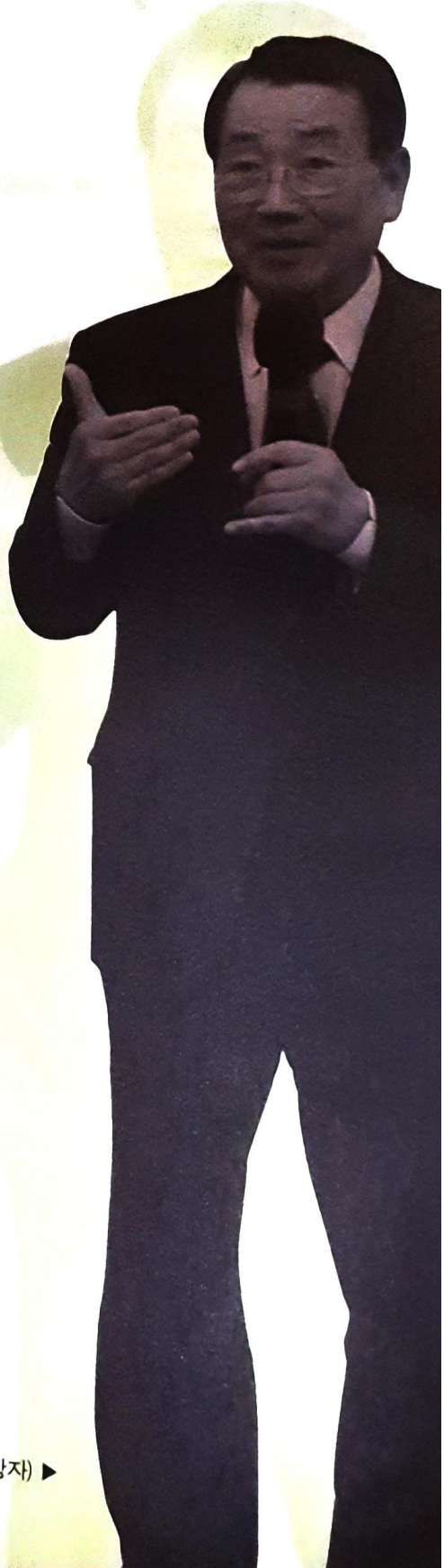


당신은 모태신앙인가?

당신은 모태신앙인가? 못해신앙인가?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봉사도 못해!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거의 보질 못했다.
예수님을 믿는 시점부터가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며 전도며 봉사도 잘 할 수 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18)

그림, 글 / 이관형 작가 artpam@hanmail.net

다음세대를 살리는 4/14 윈도우 지도자 세미나



4/14 윈도우(4~14세 연령층) 지도자 세미나가 4월 18일(월)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춘천기독교연합회 주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주관으로 개최되어 4/14 주창자 김남수목사(뉴욕 프라미스교회, 4/14 Window Movement)의 강의로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목사)에서 진행되었다.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주일학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점이기에, 4~14세인 다음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감과 간절함을 가진 목회자, 평신도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10/40 윈도우의 다음 장이라 할 수 있는 4/14 윈도우를 열게 된 간증으로 시작된 강의는 회복해야 할 복음의 본질, 교회 변혁등을 도전하며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의 대처방안으로 4~14 세대를 살려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4~14 세대들이 새로운 선교주체로 주목을 받는 이유에 대해 복음의 전달력이 그 어떤 연령층보다 뛰어나기 때문이고 그들을 선교의 주체와 파트너로 여겨 세계 변혁을 앞당기고자 하는 것이 4/14 윈도우의 핵심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 본 호에서 김남수목사의 "다음세대를 살리는 4/14 윈도우 목회자 세미나" 강의를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김남수 목사 (뉴욕프라미스교회, 4/14 주창자) ▶

철저한 불교신자였던 어머니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가게 하셨다. 그 당시 교회에는 먹을 것과 노는 게 많아 재미있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친구와 건축업을 동업하다 친구의 배신으로 망하게 되었고, 이에 절망하여 자살을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찾아가는 길에 누군가에 끌리듯 그동안 떠나있었던 교회로 들어가게 되었다. 교회에 걸린 십자가를 보는 순간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죽으셨음이 깨달아져 심한 통곡으로 회개하게 되었고, 6개월간 눈물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게 되었다. 사업을 다시 하려고 생각해보다가 복음을 전하는 가치 있는 생을 살리라 결심하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부르심에 의해 월남과 독일을 거쳐 미국 뉴욕에서 목회를 한 지 72세간 된 지금 40년이 되었다.

세계 3대 박물관중 하나인 영국의 대영박물관에 있는 1,300만개 소장품 중 대표적인 소장품은 로제타스톤이라고 한다. 길이 1.25m 두께 0.28m인 이 검은 돌에는 이집트 상형문자와 민용문자, 그리스어가 쓰여 있었는데, 탁본을 프랑스가 가져갔다. 아무도 풀지 못한 이 상형문자를 프랑스 천재 언어학자 존 푸랑수아 샹폴리옹이 풀었는데 이로 인해 그동안 해독이 불가했던 고대 이집트 유물과 유적에 그려진 상형문자를 해독하게 되는 인류 역사의 큰 사건이 되었다. 이와 같이 40년 목회생활 중 하나를 깨달으니 수십년간 몸부림치던 일들이 한순간에 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4/14 Window Movement를 하게 된 계기

그것은 세계하나님의성회 회장단과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방문하며 북한사회를 구석구석을 돌아보게 되면서부터였다. 역사적으로 독재는 평균 34~5년 정도면 막을 내렸는데, 북한은 3대가 쿠데타가 없이 어떻게 지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궁금했었다. 이유는 북한 사회는 가정이라는 인간의 기본구조를 파괴시켜 아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맡아 기르게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탁아소에서부터 혁명사상이 무장된 사람으로 가르쳐져, IS나 통일교 신천지같이 이단이 세뇌하듯, 비현실을 현실로 착각하게 하여 신앙화 인격화 의식화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일생을 아침저녁으로 세뇌시켜 정권을 유지하는 무시무시한 집단이 된 것이다. 그래서 분단이 국토분단만이 아니라 문화와 종교적으로 영적인 분단이 되니 같은 민족이라고 해도 너무 다른 민족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어릴 때부터 사상교육을 끝내는 것이다.

기독교 백년대계를 세우자

이것을 깨닫는 순간 기독교 교육이 퇴보되어 있는 이유를 보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기독교 백년대계를 놓는 것이라는 것을 어이없게도 북한의 주체사상 의식화 교육을 통해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후 주일설교를 끝내면 월요일 새벽 남미 시골 마을로 가서 주말에 돌아왔다. 그곳에 학교를 세워 500명의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며 복음을 전했다. 교인 한 명이 한 아이의 후원자가 되어 500명

에게 교복과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니, 아이들이 변화되는 기반이 되었고, 신앙을 갖게 되니 선교사 교사의 꿈을 꾸는 아이들로 변화되었다. 교육이 사람의 본질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선교전략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1885년부터 석학들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1500여개의 학교를 세워 교육을 시켰고, 그 힘으로 일본이 점령하는 시점에도 독립운동과 민족개화운동을 주도했으며, 민족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 부흥의 산실이 되었다. 지금 아이들을 키우면 다음세대가 세워진다. 교회가 조국의 앞날을 위해 늦기 전에 어린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 왕국을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시급한 일이다.

이슬람의 전략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들이 공략을 하고 있다.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이다. 문제는 위기에 대한 대책을 모르는 것이 더 큰 위기이다. 이슬람도 마찬가지로 한 나라에 들어가 유치원과 고아원을 세우고 대학을 세우며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코란을 가르친다. 이렇게 조용히 진행을 하다가 과반수가 되면 국회에 진출하고 다른 종교를 없애는 법을 만들어 개종 안 되면 집단 폭력을 일으킨다. 요사이 뉴스에서 보게 되는 내전은 이슬람이 하는 일이다. 2억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슬람에 다 넘어갔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지키지 못한 심각한 현실이다.

하나님 나라 왕국을 위한 교회

교회는 하나님 나라 왕국에 속한 군인 의식이 있어야 한다. 교회가 사랑 화평 온유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국을 위해 권세와 역할을 확인하고, 전쟁을 해서 건져 내려는 의식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세상에 빼앗긴 아이들, 하나님의 지경들 다시 찾고 방어해야 한다. 교회와 목회 사역도 하나님 나라의 왕국(Kingdom)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교회를 연구해 보니, 몇 사람만 일하고 모두 먹고 축제하는 유람선 같은 교회가 있고, 전 세계를 다니며 기동력과 무기를 탑재하여 파워를 갖춘 항공모함 같은 교회가 있다. 항공모함 같은 의식으로 공부의 목적, 돈 버는 목적등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왕국을 위해 모인다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될 것이다.

천국복음을 회복하라

또 중요한 것은 선포되는 복음이 어떠하냐는 것이다. 예수님은 천국복음이라고 하셨다. 한 번도 지상복음 현실복음 물질복음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강단의 설교가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가야 하는데, 하늘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오지는 않는가. 복음이 변질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복음의 본질이 바뀌니 기도의 본질도 바뀌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과 천국 시민 된 감격을 회복시켜야 한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를 각오하라 하신 천국복음을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두자. 하나님이 지으실 고향을 바라보며 나그네 길을 갔던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본향을 생각하는 장막신앙과 창세기 마지막 장에 요셉이 110세로 입관하였더라 함과 같이, 복음을 받고 입관까지 짧은 시간동안 입관이후의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고 고난을 감당하는 입관신앙을 회복하자.

4/14 Window Movement 확산

1989년 로잔대회에서 선교전략가인 루이스 부시 목사의 전 세계 2/3가 거주하는 10/40 WINDOW를 주창했고, 이를 통해 한국교회는 많은 선교사를 그곳에 파송하였다. 그러나 1900년 애딘버러 최초 선교대회부터 2000 비하인드 서울대회까지 100년간 주요 선교대회를 기록 조사하여 선교흐름을 기록한 "선교 트랜드(조동석목사 저)"의 책을 보면 그 동안 선교대회 중에서 한 번도 어린이가 선교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고 어린이 선교에 집중된 적이 없었다. 루이스 부시박사와 (고)랄프 윈터 박사와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 이 부분을 회개하며, 4/14 WINDOW MOVEMENT를 이슬람화를 막아내는 방법임을 고백하는 TRANSFORM WORLD 핵심운동으로 세우게 되었다. 뉴욕 프라미스교회는 5년간 700만불(70억)을 후원하며 150개국 3,500명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후원해왔고 약 1억 5천만명의 남미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오고 있다.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가지니 엄청난 일들이 사역 안에 일어나고 있다. 4/14 윈도우가 성공적 어린이 선교운동으로 지속적 진행을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6가지 사역이 필요하다. 1. 학교설립 운동 2. 스포츠 선교사역 3. 문화 선교사역 4. 4/14 윈도우 목회자 컨퍼런스 5. 교육선교 사역 6. 어린이교회 개척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복음으로 세워진 다음세대에게 달려 있다

싱가폴의 한 교회는 우간다에 5천 교회를 세웠다. 놀고 있는 청년들을 모아 그들의 가정 생활비를 교회가 감당하며, 예수님을 위해 일하도록 훈련시켜 지역으로 내보냈기에 가능했다. 한국교회에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중퇴한 청년들을 교회마다 추천을 받아 모으고 펀드를 모금해서 최저생활비를 주며 훈련을 시켜 동네와 지역에 파송하여 전도하도록 세워보기를 도전한다. 춘천교회에도 이와 같이 도전한다. 그리고 교회가 연합하여 문화코드를 읽고 교회 밖 아이들을 위해 축구 콘서트 뮤지컬 크리스천 연예인 등 문화매체를 통해 아이들을 모아 보라. 교회에서는 태권도 미술 드럼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을 모아 보라. 다음세대를 잃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복음으로 세워진 다음세대에게 달려 있다.

취재 / 이은정기자 graceyh02@hanmail.net



춘천 내 중·고교 기독동아리를 소개합니다.

예스컴(YESCOME)에 소속된 춘천 내 중 · 고교 기독동아리를 소개합니다.
예스컴(YESCOME)은 1996년 2월 춘천에서 시작되었으며 청소년들을 실력, 인성, 영성을 갖춘 예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자로 세워 파송하는 초교파 단체입니다.

엘 리 에 셀

춘천여자고등학교 43분

♥ 999+명이 좋아합니다
춘천여자고등학교 #새로운 친구 #헬퍼 출입 #성령의 임재

먼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임이 되고 있어 감사합니다. 새로운 친구가 나오고 있는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학생들이 모임을 사모하여 능동적인 모임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스컴 핼퍼가 학교에 출입하는 것에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에도 핼퍼가 성실히 학교를 찾아가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핼퍼가 학교 출입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모임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춘천여자고등학교

엘 르 욘



유봉여자중학교 54분

♥ 999+명이 좋아합니다
유봉여자중학교 #엘르욘 #성경암송 #전도 #동아리 정식등록

유봉여중은 정식인원이 5명이 되어야 학교에서 동아리 등록이 가능한데 지금은 3명이 모인 가운데 있어 방과 후에 모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모임의 풍성함을 위해 성경암송을 해오기로 약속하는 열심을 보이고 있어 감사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등굣길에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동아리 정식 등록과 담당선생님이 정해지도록, 모임이 수월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봉여자중학교

춘천고등학교



엘리사

춘천고등학교 8분



♥ 999+명이 좋아합니다

춘천고등학교 #중보 #엘리사 #열정

춘천고는 좋은 환경 가운데 예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엘리사" 예배 및 기도 모임 시간에 열정적으로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모임에 새로 나온 친구들이 점점 많이 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학교 내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주어졌는데, 이를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해 학교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친구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엘리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소리

강원고등학교 23분



♥ 999+명이 좋아합니다

강원고등학교 #생명의소리 #예배장소

강원고 "생명의 소리" 학생들은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학생들 2명으로 시작된 모임이 이제는 5명의 친구들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배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모일 때마다 빈 곳을 찾아다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은 장소와 상관없이 열심히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히 모임장소와 담당 선생님이 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강원고등학교





성수고등학교

후평중학교

익뒤스

후평중학교 10분



♥ 999+명이 좋아합니다

후평중학교 #홍보 #감사 #영성 성장 #기대

학기초 동아리 모임을 위해 홍보포스터를 은총이라는 친구가 만들었습니다. 이 홍보포스터를 통해 1,2학년 학생들에게 잘 홍보가 되고 동아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담당선생님과 모임 장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모임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학기 초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어려움이 "익뒤스" 친구들에게 자극이 되어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봄을 맞아 꿈틀대며 피어 오르는 아지랑이 같이 "익뒤스" 친구들의 영성에도 성장이 있기를 기대하며 많이 기도해주세요.

로베스

성수고등학교 1분

♥ 999+명이 좋아합니다

#성수고 #모임 #예배

성수고는 학생들 모집이 되지 않아 모임 자체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수고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담당 선생님과 연락이 되고 모임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내에서 모일 수 있는 길이 조금씩 열려 학교 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달리다굼

성수여자고등학교 지금



♥ 999+명이 좋아합니다

#성수여고 #능동적 #신입생 #활기

학생들끼리 모임에서 스스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능동적으로 모임이 이루어져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장소와 시간이 정해졌고 신입생들이 들어와 모임이 잘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세운 계획들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활기차고 즐거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성수여자고등학교

기도제목

1. 예스컴의 모든 스텝(간사, 헬퍼)들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 각 학교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내 기독동아리에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와 모임 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기도해주세요.
3. 예스컴의 모든 중보자들과 후원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도록 기도해주세요.

← 나실인

유봉여자고등학교 2분



♥ 999+명이 좋아합니다

유봉여자고등학교 #나실인 #찬양 #예배사모

"나실인"예배는 저녁 먹는 시간 동안 이뤄지는데 저녁 식사 시간이 45분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시간에 참석하는 인원이 17명 정도가 됩니다. 고3 학생들이 앞장서서 예배 분위기를 만들고 큰소리를 찬양과 기도를 하는 모습에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예배를 드릴 학생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봉여자고등학교

← 한울

봉의고등학교 37분



♥ 999+명이 좋아합니다

봉의고등학교 #한울 #어학실 모임 #자부심 #참행복

봉의고 "한울"은 5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매주 예배를 합니다. 예배 장소는 수년째 어학실이고, 모임의 수가 커서 학교에서도 "한울"의 인지도가 있는 편입니다. "한울" 지체들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의 신앙을 학교에서도 지켜간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에 참 행복해합니다. "한울"이 안 믿는 지체들에게 복음을 증거 하는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봉의고등학교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에 대한 회고와 감사의 말씀을 남겨주세요.

사랑하는 교우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재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 잊지 않고 반드시 춘천 발전, 반듯한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선거 초반부터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했지만 묵묵히 제 갈 길만 걸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비방전에 넌더리를 내면서 이번 기회에 선거문화를 바꿔보자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 선거는 수차례의 TV토론과 유세, 언론보도를 통해 누가 춘천 발전의 적임자인지 판단하신 결과라고 봅니다. 함께 고생한 허영, 강선경 후보에게는 이번 글을 통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젊고 능력 있는 후배들이기에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역 발전에는 여 ·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춘천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쳤으면 합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이셨다 할지라도 다 같은 춘천시민입니다. 춘천을 살리고 일으키는 데는 내 편, 네 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선거과정에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갈라진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로 모으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력했던 일과 다시 도전하고자 하는 업무는 어떤 것인지요?

지난 4년간 국회에서 나름 소신껏 목소리도 내고 지역예산을 따내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강원도 국비 6조원 시대가 열렸고, 제2경춘국도도 이제 첫발을 뗐습니다. 지금 춘천은 제2의 도약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우선 시민 여러분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장 발 벗고 나설 계획입니다. 제1공약인 제2경춘국도 추진상황 점검과 경춘선 전철 청량리역 연장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날 계획입니다. 레고랜드 문화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문화재청장도 만나겠습니다. 춘천 샹젤리제(구도심 도보관광거리)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즉시 협의에 착수하겠습니다. 다른 공약들도 수개월 전부터 세워 놓은 이행계획에 따라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당장 시급한 과제가 또 있습니다. 내년도 춘천시 국비를 각 부처에서 막바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 2월에 가졌던 시청과의 정책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시청 · 도청과의 정책공조도 더욱 활성화하고,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중앙부처 접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이슬람경제포럼(WIEF)에 대한 생각과 이슬람 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하여 말씀해주세요.

강원도가 할랄타운 조성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으나, 세계이슬람경제포럼(WIEF) 개최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3천명 규모의 제13차 세계이슬람경제포럼이 강원도에서 개최되면 다수의 무슬림이 국내에 입국하게 되며, 온 국민의 생사가 달린 안보문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미 영국이 제9차 세계이슬람경제포럼을 열고 약 2조원의 자금을 유치한 이후 이슬람화가 가속화 되어 무슬림 테러로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슬람에 대해 단순히 비즈니스로만 접근 했다가는 영국과 같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는 친이슬람 정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세계이슬람경제포럼 개최를 조속히 취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외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성차별금지법〉도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국회에서 두 눈 부릅뜨고 지키겠습니다. 이런 나라 안팎 파상공격을 담대하게 막아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취재 / 조영춘 기자 gloryyc@naver.com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세대 간의 소통의 장을 만들다

신승택장로 (현대한약방 원장, '처방전' 한방카페, JDM 운영위원장)



"처방전"이라하면 흔히 병원이나, 약국,
아픈 것과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익숙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한약방이나 약국이 아니고,
한방 카페라면 건강에 관심이 많은 요즈음
한 번쯤 가보고 싶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4.13 총선 날 일찌감치 투표하고,
옛 육림극장 뒤편 거리를 환히 밝히고 있는
"처방전" 카페에서 "현대한약방"의 원장이며
카페 운영자이신 신승택 장로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먼저 장로님께서 출석하시는 교회와 JDM(예수제자운동)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소개해주세요.

JDM내 한국제자훈련원 채플인 한제 채플에서 예배하며 장로로 JDM 사역과 사역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JDM은 39년전 춘천에서 시작된 선교단체로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마28:19)"는 비전을 중심으로 제자훈련을 통해 국내외 젊은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세상으로 파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27세에 윤태호 목사님(JDM 대표)을 만나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하며 동지로 동역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JDM 간사, 선교사들과 훈련생들이 사역과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건축본부장과 운영위원장으로 JDM 사역을 섬기고 있으며, 특별히 사역자들이 자녀교육과 은퇴 후 삶과 사역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공동체 조성과 준비에 관한 문제를 위해 기도하며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장로님이신데 신앙적인 배경은 어떠하신지요?



공직자고, 천도교인이셨던 부모님께서 먼저 회심하여 교회에 나가던 형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후 장로로 교회를 섬기다 돌아가셨고, 형제들도 장로로, 안수집사로 지역교회를 섬기며 헌신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27살 때 JDM대표이신 윤태호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부터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아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곧 하늘(人乃天)"이라는 천도교의 자신을 믿는 사상으로 나름 경쟁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지만, 현실사회 속에서 한없이 작고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하며 낙심하여 방황하던 청년기 시절, JDM 사무실 앞을 지날 때면 늘 또래의 젊은 사람들이 모여 웃고 노래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들의 저런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참 신기하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기 내어 윤 목사님을 찾아뵈었고, 그 후 제자훈련을 받게 된 것이 삶의 전환점이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만남이 참 중요한데, 윤 목사님을 만나 예수를 알고 믿게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지요. 그 이후 부모님을 비롯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결혼 전 믿지 않던 아내도 권사가 되어 저보다 더 신실하고, 열심인 신앙인으로 사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현대한약방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하시게 되셨는지요?

저는 중국 하북의과대학에서 7년간 중의학을 공부하고 중국 국가고시를 통해 중의사 면허를 갖게 된 중의사이기고 하지만, 1983년부터 33년간 춘천에서 한약방을 경영하며 지역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나름 학문과 임상을 겸비한 의약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왔습니다.

제가 이 일을 꿈꾸게 된 것은 소싯적, 춘천시 요선동에서 한약방(오약방)을 하시던 할아버지 친구 분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어린 시절 가까이 계신 한약방 할아버지를 통해 한약을 가까이 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한의사가 되라' 고 유언처럼 당부하셨던 할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도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아마비라는 신체의 연약함 때문에 더욱 한의학이라는 학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공부하기 시작하여 어언 4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렇게 '카페 처방전' 과 함께 하는 새로운 형태의 한약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한약방과 더불어 "처방전"이라는
한방카페를 오픈하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작년 7월, 생각지도 않게 한약방을 이전해야 할 본의 아닌 상황이 발생해 심한 고민 속에 갈등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도 중, 하나님께서 한약방 이전을 하지 않고 '카페와 함께 하는 새로운 형태의 한약방'이라는 지혜를 주셨고, 구체적으로 한방카페를 구상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단지 쓰다는 이유로 한약을 기피하는 젊은이들로 인하여 고객층이 고령화 되어가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던 가운데,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생약만으로 맛을 부드럽게 하여 퓨전화하고, 효능을 유지할 수 있는 한방차를 개발하여 올해 1월에 "처방전"이라는 카페를 열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커피를 비롯한 일반카페 메뉴도 준비하여 많은 청년들의 호감을 얻고 있지만, 젊은이들 중 50~60%가 한방차를 찾는 고무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방 카페 "처방전"이 세대를 넘은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고 하시던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처음 시도할 때는 모험과 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많은 고객들이 좋아하며 즐겨 드신다는 것이 놀랍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한방차를 가까이 하므로 한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무적인지 모릅니다. 그런가하면 많은 고객들이 차를 마시며, 한약에 관심을 갖고, 차를 통하여 한방건강에도 관심을 갖고 상담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약방을 찾는 환자들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처방전" 카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한약방 문턱을 드나드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편, 청장년들과 어르신들, 부모님과 함께하는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주고객층이라고 할 정도로 기이한 카페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젊은이들과 어르신들의 소통이 어려운 시대에 테이블마다 다른 세대가 자리하여 자연스럽게 하나를 연출하게 되는 장면이 참 아름답고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며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늦은 저녁 부모님의 건강을 생각하여 한방차를 테이크아웃 해서 가기도하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약보다 쉽게 마실 수 있는 한방차를 애용하도록 하는 장면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한 보람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처방전"의 인테리어와 분위기도 테이블과 온돌을 함께 구비하여 현대와 전통이 한자리에서 어우러지도록 구상하였습니다.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젊은 부부들이 온돌을 애용하고, 아이들과 어른들, 노인과 젊은이가 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즐겁게 대화하며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는 광경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요즈음 세대 차이가 크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데 "처방전" 카페를 통해서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도리어 세대 간의 연합과 교제가 일어나는 특별한 장소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장로님 가정도 소개해주세요.
부인 권사님을 천사공주라고 부르신다고 하시던데요. 결혼하실 때 어려운 일이나 자녀교육의 특별한 방법이 있으셨는지요?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아픔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방황하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말씀과 평생습관인 새벽기도 생활을 통해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성문제와 결혼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던 중, 많은 반대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고 선택해줬던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면서 "참 천사 같은 여자다. 평생 공주처럼 떠받들고 살아야지~"하는 다짐을 했었지만, 세월이 지나 오히려 내가 왕자가 되어 받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초심을 찾아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의 표현으로 '천사공주' 라는 호칭을 다시금 찾은 것입니다. 2녀 1남인 자녀들은 일찍 달란트를 찾아 자신들의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학원이 아닌 자율적 학습을 권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 졸업과 함께 모두가 인정하는 직장에서 자신의 일들을 하고 있고, 막내아들은 선교의 뜻을 품고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교육의 방법이라면 아이들의 평생에 기억될 신앙생활을 학습시키고자, 어려서부터 새벽기도를 데리고 다니고 함께 가정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깨우치면서부터 성경 필사를 하게 하였더니 성경도 읽고, 한글도 배우는 효과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 지혜롭게 잘 자라주었고,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감사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님이 생의 지표로 삼는 성경말씀과 인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장로님의 비전도 나누어 주세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항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일을 선택하고 행할 때 묵상하고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인물로는 사도행전의 바나바를 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오직 섬김으로 교회와 사역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현대한약방과 카페 처방전"도 마태복음 말씀과 바나바의 사역과 같은 섬김의 한 분야일 뿐이며, 사역자들과 교회사역과 세계선교를 위한 비전을 바탕으로 창업하였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고, 남녀노소를 초월한 세대 간의 소통의 장과 또 평신도 전문사역의 비전을 품고 선교의 동력을 키워내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이바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재 / 이연희 기자 skyphone119@hanmail.net



SWEET CAILA

원영은 | OIL ON CANVAS | 30호 F | 2016

이 작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큰 오빠의 첫 손주를 각색해서 그린것이다.
평소 달콤한 케익을 좋아하는 우리 캘라가 할머니인 나의 새언니와 찍은 사진을 보며,
그 옆에 순한 골드리틀리버를 넣어서 재미있고 귀여운 장면을 연출하였다.
마치 케익보다 더 달콤한건 우리 조카손녀의 귀여운 미소같아서... (작가노트)

원영은 집사 (춘천 동부교회)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교 졸업
개인전 3회
단체전 다수, 현 이화갤러리 미술학원 원장, 춘천미술협회 회원

취재 / 이관형 기자 artpam@hanmail.net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

글 / 박의범 교수 (강원대 명예교수, 몽골국제대 부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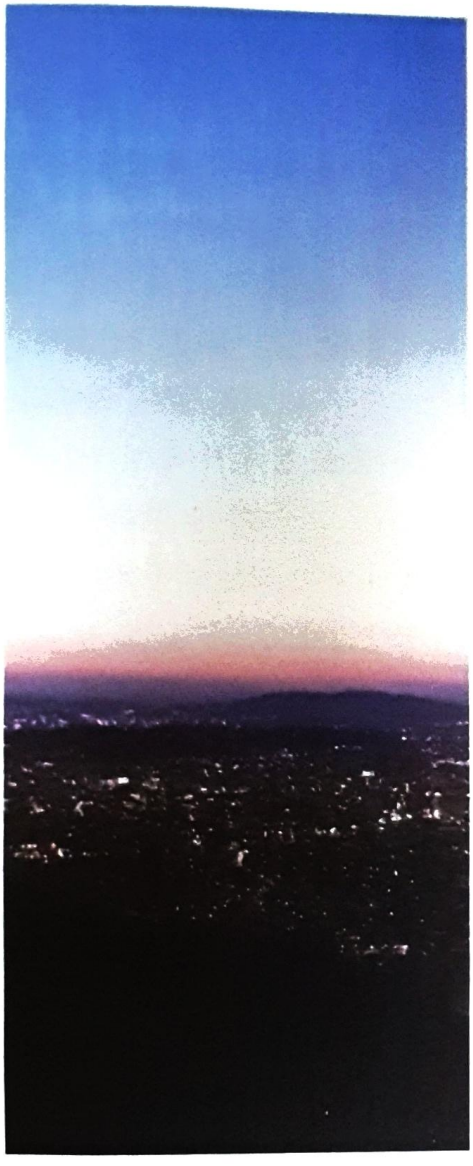
21세기에 자비량선교(tentmaking)가 더욱 절실한 이유로는 우선, 선교사역의 본질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해외 선교단체들이 하나님의 정규군이라면 복잡한 현지국 사회구조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위해 평신도들의 게릴라식 자비량선교가 필요합니다. 둘째,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차별화된 새로운 선교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화되지 않은 많은 종족들을 복음화하기 위해 여러 나라 출신의 전문인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급속히 증가하는 선교사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문제 때문에 전통적이 아닌 새로운 자비량 선교전략이 필요합니다. 넷째, 선교에 폐쇄된 국가들 때문입니다. 서서히 열리고 있는 13억 인구 중국 대륙의 중국인과 다양한 소수민족을 비롯해 해외거주 중국인 수백만, 수년 내 중국 인구를 초월할 것으로 예견되는 '젊은 인도'의 힌두교인과 전 세계 힌두교인 그리고 무슬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끝으로 급변하는 세계선교환경에 부응하는 다양한 차원의 선교전략이 필요합니다. 민족주의 발흥, 동양종교 부흥, 도시화, 세속화, 산업화, 교육열, 경제 세계화 및 블럭(Bloc)화 등으로 전문선교사에 비해 자비량선교사에게 유리한 선교환경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754년 모라비안 자비량선교사들이 라틴아메리카 수리남에 설립해서 250여 년이나 존재해 오는 크리스토프 켈스텐 주식회사(Christoph Kersten & Co.)는 처음 두 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재봉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모라비안 교인들은 합심해서 상업, 제

과업, 시계제조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직업이 없는 현지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원의 복음까지 전파했습니다. 회사 이름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인과 회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926년에 수리남의 모라비안 교회에는 1만 3천 명의 성도가 모였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 회사는 수리남에서 가장 큰 무역회사로서 세계 도처에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들이 교회헌금과 복지구호사업을 위해 년 간 수십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모라비안 자비량선교사들을 연구한 윌리암 댄커(William Danker)는 "그들이 직장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선교사역의 시청각적인 삶을 그대로 볼 수 있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짓는 차원이 아니라, 직원들의 일상 업무자세 등 기업문화 그 자체가 성경적인 삶의 모델을 제시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회사는 당시 북미의 미국이나 캐나다 기업보다 퇴직연금이나 근로자를 위한 의료보험제도를 먼저 도입하였으며, 주택을 마련하는 후생복지제도에서도 앞 서 있었습니다. 매일의 일과는 예배를 드린 후에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로서 각자 일상의 직업생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사례는 전문사역자가 아닌 사업가나 경영관리자 혹은 일반직장인이라도 선교사역을 확장하는데 명예로운 한몫을 담당해야 된다는 점을 깨닫게 합니다.

최근 해외선교환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선교사의 신분을 지니고는 세계의 많은 폐쇄지역들로 들어가는데 한계성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로잔 2차 세계대회에서도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해외선교는 이제 전통적인 전문선교사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평신도 자비량선교사들이 참여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해외선교사를 '해외에서 사역하는 안수받은 목사'라는 정의에 집착하기 때문에 평신도들의 자비량선교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도 해외선교환경의 변화추세에 맞춰 달라져야 하리라 믿으며, 이제는 평신도 자비량선교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최대 고민인 일자리창출과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창조경제의 지름길이 성시화의 근원지 춘천에서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통해 열려지길 기원합니다.



새벽기도 김춘배

밤사이 곤한 잠의 수풀

깊은 꿈의 여운이

이슬 몇 방울로 맺혀 구르는

동틀 녘

누가 깨우는가 혹은

누구를 찾아 손 내미는가

안개의 커튼을 열어젖히고

울리는 영혼의

새벽닭 울음소리

김춘배
2002년 기독공보사 기독신춘문예 시부문 당선
A4詩동인
강원기독문인회
춘천 성시 영화담당 기자



중동 사막지대에 서식하는 식물 중에 싯딤나무가 있습니다.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나무로서 생명력이 매우 강하고 단단한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여정 중 법궤를 만들 때 사용했던 나무가 바로 이 싯딤나무입니다. 성경에서는 조각목이라고도 합니다. 법궤나 성막의 널판, 채, 띠, 상들을 만드는데 사용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상자 곧 법궤를 만드는 주 재료가 이 싯딤나무입니다.

중동의 사막지대는 매우 건조한 지역입니다. 연중 강우량은 20~30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토양은 흙모래로 되어 있어 수분을 오래 간직하지 못합니다. 햇빛은 매우 강렬해서 생명체를 불태워 사를 듯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생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보통 식물은 싹조차 틔우지도 못합니다. 설사 싹이 나와도 말라죽지 않고 뿌리를 내려 생존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싯딤나무는 이러한 악조건과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명을 유지해 왔습니다.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잎은 가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몸체의 물기를 보존하기 위하여 작고 두터운 잎을 새로 만들어 냈습니다. 가지와 줄기는 적은 양의 비와 이슬을 잘 모으기 위해 우산 모양으로 자랍니다. 열사의 사막에서 십여 미터의 큰 나무로 자라 웅대한 자취로 서있는 싯딤나무는 가히 대단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막에 우뚝이 서있는 싯딤나무를 보노라면 경외감마저 듭니다.

그렇습니다. 싯딤나무는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싯딤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거의 유일한 나무입니다. 싯딤나무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온 몸으로 받아 사는 나무입니다. 땅이 주는 것만으로 사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 뿌리를 땅속에만 묻고 땅을 의지하여 사는 나무가 아닙니다. 싯딤나무는 하늘의 비와 이슬을 받아 땅 속 깊은 뿌리에 저장하여 사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말씀을 담는 법궤를 만들 때 이 싯딤나무를 사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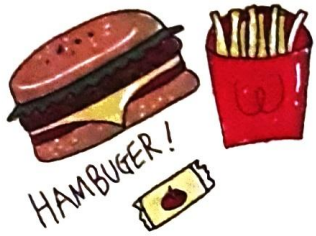
이 시대의 메마른 광야 한 가운데도 하늘이 내리는 비를 머금고 사는 싯딤나무가 있습니다. 오직 하늘의 말씀을 받아 말씀으로 세상을 살고 땅에 것으로 연명하지 않는 싯딤나무! 하나님이 기르시고 자라게 하시어 마침내 시대를 움직이는 말씀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임용웅목사 (춘천명성교회)



정크 푸드? 패스트푸드?





글 / 이관형 기자 artpam@hanmail.net

이 글을 쓰는 필자는 올해 웬 해외여행 복이 그리도 많은지 올해 초 일본에 이어 지난달에는 어느 미국협회의 초청으로 미국 서부를 다녀왔다. 우리나라 다섯 배 크기인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와 LA에서 머무는 동안 그곳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해 무엇을 아느냐하고 물으면 이곳에선 거의 대부분 '태권도'라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음식 중 불고기, 삼겹살, 비빔밥, 잡채를 아느냐 물으면 엉뚱하게도 이런 음식이 일본음식인 줄 알고 '스시(초밥)'는 먹어 봤는데 그런 음식은 먹어 본적이 없다고 한다. 하긴 이곳도 마찬가지지만 유럽이나 동남아에도 한국 사람이 일식 레스토랑이란 간판을 내걸고 한식을 파는 경우가 많으니 마치 삼성이나 현대, 기아 등의 대기업이 일본 기업인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한식이 일본 음식으로 많이 오해를 받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이곳 미국의 대표적인 음식은 서민적인 음식이자 정크 푸드의 대표주자인은 햄버거일 것이다. 필자는 평상시 햄버거와 피자 등은 내 돈 주고는 아까워서 사 먹질 않고 누가 사준다고 해도 건강상 좋지 않다는 생각에 잘 먹질 않았다. 하지만 미국에 머무는 동안 먹기 싫은 햄버거 혹은 피자를 간식도 아닌 하루 한 끼 식사대용으로 먹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일단 배는 고프니 소화가 잘 안되더라도 내 몸을 마치 음식물 쓰레기통인 마냥 우적우적 넘기고 난 후 콜라를 소화재인 '가스 활명수' 처럼 생각하고 마시다 보니 뱃속이 계속 부글부글 끓어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기도 했다. 나중에는 음료를 콜라대신 햄버거와 피자에 궁합이 맞는 우유를 마신 후 부터는 속이 좀 진정이 되었다. (콜라는 그나마 햄버거에 있는 영양소를 전부 파괴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지만 우유는 그렇지 않다)

이곳 캘리포니아 로마 린다 지역은 (햄버거를 안 먹는) 전 세계적으로 100세 이상 장수인이 유별나게 많이 사는 곳으로 이른바 장수촌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인종이 사는 이곳 주민들은 성경의 창세기 구절에 따라 곡식과 채소 위주의 식사를 따르고 견과류 섭취량이 많고 두유를 자주 마신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이곳 여성의 기대수명은 미국 평균 80세보다 9년이 길고 남성은 평균 수명 87세보다 11년이 길다고 하니 상상이 가질 않는다.

그렇다면 반면 미국사람이 싫어하는 한식음식은 무엇이 있을까?





필자는 매년마다 내한하는 외국인중 특히 미국인들과 식사를 할 때는 메뉴에 많은 신경을 쓴다. 먼저 미국인(서부지역)이 거부감을 느끼는 음식은 김밥, 삼계탕, 떡 그리고 오징어, 낙지, 영양탕 요리이다. 김밥의 주재료인 김은 블랙페퍼라 하여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군 포로로 잡힌 미국인들이 종전 후 포로 수용소에서 제공되는 김 반찬을 블랙페퍼 즉 검은 종이라 하여 고문하는 도구로 오해하여 보고된 일화가 있다. 이러한 이유는 간단하다. 김은 해물이며 떡과 마찬가지로 치아사이에 끈적하게 끼어서 보이는 그대로 입안을 더럽고 찜찜하게 만든다는 이유다. 그래서 김으로 밥을 싸지 않은 일명 누드김밥의 캘리포니아 롤이 탄생된 것이다. 그리고 당연 물에 빠진 닭고기(삼계탕)은 먹지 않을뿐더러 외계인처럼 생긴 오징어와 낙지는 완전 혐오식품으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선정한 세계1위 혐오식품이 태국의 바퀴벌레 튀김도 아니고 스위스의 구더기 치즈도 아닌 바로 산채로 먹는 오징어와 낙지다. 예전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 에서 주인공이 산낙지를 먹는 장면은 공포영화 '쏘우' 를 능가할 만큼 서양인들에겐 아주 혐오스러운 장면이었고 바우와우 (멍멍탕)은 미국 사람들에겐 몬도가네 음식이다.

미국에선 우스갯말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위급 상황시 제일 먼저 대피시키는 게 어린이와 노인들 그리고 여성 그 다음이 멍멍이고 맨 마지막이 남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국인들에겐 멍멍이는 가족구성원 이상이다. 그런 걸 알면서도 오래전 필자가 멋멋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음식! 남자라면 꼭 먹어야하는 보양식이라 하여 장난기 있게 대접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알고 있는 듯 한 눈빛으로 수육을 너무 맛있게..)

그럼, 요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새로운 트랜드의 음식을 꼽으라 하면 김치찌개, 잡채 등도 있겠지만 우선 필자는 비빔밥을 말하고 싶다.

비빔밥은 국내 항공사 기내식에서도 심심치 않게 먹어 왔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예전 박근혜대통령이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요리가 비빔밥이라 말한 적이 있었다. 다양한 재료가 섞여 맛을 내듯 각자 개성과 지역마다 특성은 달라도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나라를 잘 이끌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 같은 말과는 달리 4.13 총선에서 참패한 것은 어쩌면 비빔밥 같은 융합이 없어서 일거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교회에서 영의 양식을 먹는다. 그리고 영의 양식을 조리하는 목사님이 비빔밥처럼 어느 재료 부족하지 않게 잘 조리(설교)를 해야 모든 성도들이 맛있게 먹고 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많은 성도들은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 하여 (시험에 들게 되어) 다른 맛집을 찾아서 떠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요리사인 목사님 스스로 떠나갈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도록 서로서로 관심과 사랑, 인내를 갖고 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자~!





노 블







5월은 가정과 청소년의 달이다. 온가족과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영화라면 당연히 디즈니의 동화작품이라든가 판타지물, 소위 19금이라는 성인물을 제외한 영화가 주로 떠올리겠지만 이 영화는 특히 5월에 꼭 봐야 하는 작품이지 싶다. 청소년이 주인공이라서? 혹은 내용이 청소년스러워서?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인 영화이다. 또한 믿음의 내밀한 속성을 묵상하게도 하지 않나 싶기도 하다. (그런데 왜 이 영화가 청소년 관람금지가 된 것일까?)

그러니까 주인공인 한 여자의 일생이 어떻게 그 먼 나라 베트남이라는 개발도상국에서 불우한 아동들을 구제하려는 글로벌 자선의 행위로 이어지는가 하는 과정인 것인데 사실 그 과정이 또한 이상하게 설득력이 좀 약하다. 그러나 그 제목 그대로 숭고(noble)한 정신은 이 세대, 이 세계의 우리 모두 본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만이 확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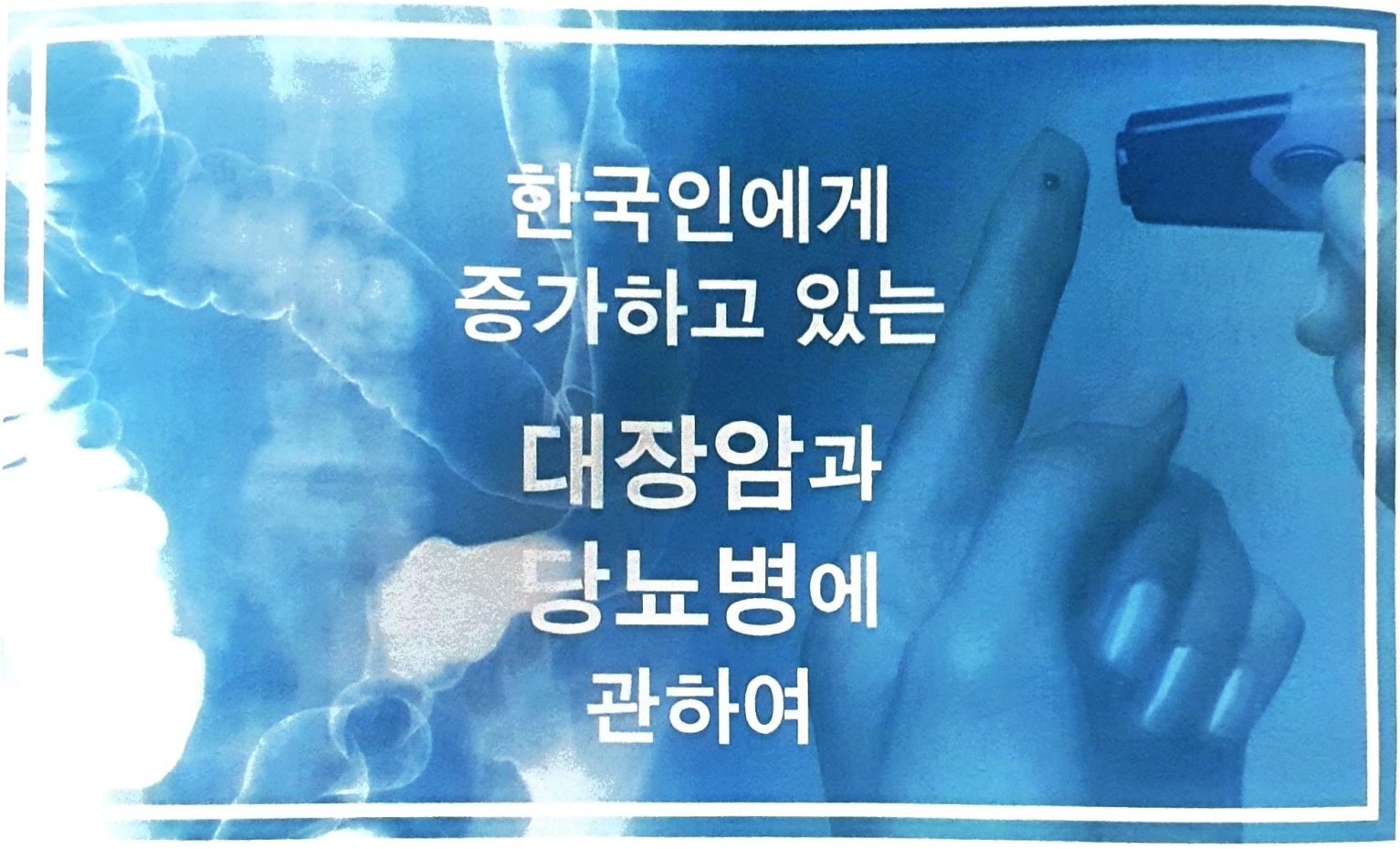
이 노블한 여인의 이름이 바로 '크리스티나 노블 Christina Noble'... 실존인물이라 하니 그 이름이 참 공교롭기도 하다. 숭고하다는 뜻이 이 여인에게서 유래된 단어인지 이름이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이 그처럼 숭고했는지...어쨌든 영화 전체가 참 숭고한 것만은 틀림없다.

베트남 전쟁이 종료된 지 14년이 지난 1989년. '크리스티나 노블'은 과거의 순탄치 않은 삶을 뒤로 한 채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베트남의 호치민으로 떠난다. 그러나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희망이 아닌 절망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해맑은 미소를 지어야 할 아이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어둠이 그늘져 있고, 그녀는 아이들에게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데...이렇게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간략히 소개된 스놉시스에서 짐작하겠지만 노블의 어린 시절은 불운의 연속이었다. 알콜중독자이자 경제적으로 무능한 아버지를 두었으며 생활고로 엄마까지 잃고 동생들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그녀의 청소년시절은 그야말로 비참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그녀는 기도를 하면서 그러한 생활의 고통을 하소연하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그녀의 바람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희망을 잃지 않고 눈물겨운 극복으로 성장해 간다. 여기서 믿음의 내밀한 속성, 즉 기도응답의 문제를 만날 수 있는데, 사실 응답받는다고 반드시 개선되거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한다. 그녀는 한 번도 원망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주님의 뜻은 더 큰데 있던 것이 아닐까? 바로 이국 베트남에서 운명적으로 만나는 어린 아이들의 비참한 현실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 말이다. "제게 방법을 주세요. 저는 나아갈 테니 당신이 나를 인도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인한 은혜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주인공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삶이 없었다면, 그녀의 헌신적인 삶은 진정성을 잃었을 듯. 그러기에 더한 울림을 주는 이야기다.

영화 〈노블〉은 부부가 영화의 연출과 주인공을 맡아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는 작품이다. 즉 남편 스티븐 브래들리가 감독하고 아내 드어드리 오케인이 주연을 맡았다는 것인데, 이들 부부가 크리스티나 노블이라는 여인의 삶에 주목하게 된 것은 먼저 아내 드어드리 오케인이 노블의 도서 『내 슬픔을 건넌 다리』를 접하고부터였으며, 크리스티나 노블 어린이 재단의 이름으로 열린 행사 사회자로서 그녀를 직접 만난 후에는 그녀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한다.

깜찍하고 인상적인 아역 글로리아 크레이머 커티스의 연기가 돋보이는 가운데 2014년 산타바바라 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비롯 여러 수상과 후보 선정으로 작품성을 크게 인정받았다.

글 / 김춘배기자 beller@hanmail.net



한국인에게 증가하고 있는 대장암과 당뇨병에 관하여

대장암

우리나라 모든 암 중에서 발병률 2위인 대장암의 주원인이 과식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포만감 들면 그만 먹어야한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첫 대장암 예방수칙이 나왔다. 첫 번째 수칙은 '과식금지'이다. 단서조항으로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하다고 명시했다. 다시 말해 과식으로 이어진 비만이 대장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 이번 예방수칙은 대한암예방학회가 지금까지 나온 대장암 원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총정리한 것이다.

과식은 어떻게 대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과식은 신체활동에 필요한 음식물을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섭취한 상태다. 우리 몸은 평소보다 많이 들어온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 위산 분비에 집중하다보니, 장에서 소화흡수율은 떨어진다. 결국 몸속에 흡수되지 못하고 남는 물질이 증가한다. 특히 대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물질은 '당(糖)'과 '지방' 찌꺼기이다. 당과 지방 찌꺼기들은 장내 세균에 의해 분해돼 여러 작용을 일으키는데 그 과정에서 대장암을 유발한다.

과식이 지속되면 장내 세균군(Intesinal Bacterial Grop)이 변화한다. 이런 변화는 당과 지방 찌꺼기 분해에도 영

향을 미쳐, 과하게 분비된 대사산물이 세포 독성 물질로 작용해 만성염증을 일으킨다. 만성염증은 세포의 DNA를 손상시켜 대장암을 유발한다. 최근 과식이 대장암을 유발한다는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미국암연구협회는 **비만과 복부 비만이 술과 붉은 고기** 섭취 못지않게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발표했다. J대학 C교수는 복부 비만이 있으면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장선종 발생위험이 1.5배 높아진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포만감을 느꼈을 때 숟가락을 내려놓는 식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C대학 O교수는 "포만감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한 숟가락을 더 먹는 순간부터 과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뇨병

주요 10대 사망원인 중에서 5위, 국내 당뇨병 환자 약 400만 명... "경각심 가져야"

세계보건기구 WHO는 매년 4월 7일을 '세계보건의 날'의 날로 정하고 핵심 이슈를 선정한다. 올해 선정된 주제는 '당뇨병(Diabetes Mellitus=DM)'이다. 당뇨병은 2012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 약 3억 5천만 명이 앓고 있을 정도 확산세가 심상찮은 질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기준으로 30세 이상 인구의 10.2% (남자 12.6%, 여자 7.9%)가 당뇨병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약 400만 명의 당뇨병 환자가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당뇨병 전 단계인 공복혈당 100~125mg/dL에 해당하는 비율이 24%에 달하며, 이들이 당뇨병의 고위험군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당뇨병 환자 수가 2050년이면 6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합병증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은 실명 및 투석의 제1원인이다. 또 교통사고를 제외하면 하지를 절단하게 되는 제1원인이다. 이밖에 관상동맥질환, 뇌혈관질환, 말초동맥질환과 같은 당뇨 합병증은 당뇨병 환자의 주된 사망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동맥경화증과 같은 혈관질환이 일반인에 비해 당뇨병 환자에게서는 좀 더 젊은 나이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기 때문인데,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고 금연과 규칙적 운동으로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 당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또한 당뇨병의 근본적인 관리는 혈당을 낮추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체중 감소가 우선적으로 추천된다. 약 5~10%의 체중감소만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고, 혈당과 이상지질혈증이 호전되며, 혈압이 내려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등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시행 하도록 권장된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고 심혈관 위험을 감소시키며 당뇨병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 당뇨병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국내 실정을 고려할 때 국민의 생활습관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당뇨병 예방 · 관리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글 /정형만 원장(참사랑내과, 소양제일성결교회 안수집사)

D.쇼스타코비치
(DMITRI SHOSTAKOVICHY: SYMPHONY#5 in D min. op.47.)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 5번 작품 47"혁명"(1937년)



거의 두 달 간의 쿠마나 칩거를 마치고 수도 카라카스를 향해 귀향의 꿈을 꾸며 출발했습니다. 북미 대륙으로 가는 길에 카라카스가 자랑하는 〈엘 시스테마〉 꿈나무 음악 교육의 진실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는 구스타보 두다멜이 베네수엘라 청년인 것은 다 아시는 이야기지요? 열정적인 말러 교향곡을 지휘하는 긴 곱슬머리로 히피청년 같지만 소위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도 음악교육의 산 증인인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의 노력으로 마약과 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던 빈민가의 청소년들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음악을 통해서 꿈을 찾아주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카라카스에서 지내는 동안 잊을 수 없는 마지막 밤에 베네수엘라가 자랑하는 대 예술의 전당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4000석이 넘는 대 극장을 국립 음악원에서 성악을 전공하는 세살CESAL이 쿠마나 교회에서 유학을 온 음악도인데 안내를 맡아서 투어할 수 있었고, 마침 300석 정도의 테레사 소극장에서 카라카스 국립교향악단이 연주하는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전곡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작곡가에 대한 많은 소문과 스탈린과의 에피소드는 독자께서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고, 우리나라에서 초연되었을 당시에도 일본으로 가기 전에 지휘자 번스타인의 고집으로 사회주의 구 소련의 현대음악이 연주될 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교향곡들도 아직 소개하지 않은 마당에 이렇게 어려운 쇼스타코비치를 들먹이는 것은 어려운 형편의 이 나라가 얼마나 절제되고 세련된 클래식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수십 만원의 관람료가 아닌 단지 200볼리바르에 2,3불도 안되는 입장료로 두 시간 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는데 왠지 모를 씁쓸함이 그의 음악을 듣는 내내 가슴을 짓눌렀고, 연신 핸펀 카메라로 바로 앞자리에서 비디오를 찍어대며 등허리 활짝 들어낸 수다 아가씨들 덕분에 집중도가 떨어지긴 했어도, 첼로와 콘트라베이스가 압도적으로 무대를 채웠던 연주장에서의 연습 상황부터 실제 연주까지 마지막 카라카스에서의 밤을 멋지게 장식할 수 있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들의 음악 사랑 이야기를 70년도에 지었다는 그 예술의 전당이 세종문화회관과는 비교가 안되는 이곳 남미에서도 손꼽히는 건축물로 화려한 과거의 명성을 전해주는 듯 했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떨어뜨리는지… 우리의 현실과 만감이 교차하는 듯했습니다.

이제 남미의 향취가 가득한 멋진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의 대중 문화가 아닌 퇴색한 듯한 과거의 고즈넉한 건물들이 마치 쿠바의 아바나처럼 암울한 분위기가 가득했던 그들을 위해 간절히 두 손을 모으게 만들었습니다. 혁명과 아픔의 계절이 돌아오는 고국엔 신록이 넘쳐나겠지요? 일본과 남미 에콰도르에서 들려오는 가슴 아픈 소식들이 연일 CNN스페인어 방송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파나마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에콰도르로 돌아가던 하이메를 우연히 기적처럼 만나서 서로 놀랬는데 다행히 그의 고향인 오타발로 지역은 괜찮다는 보도지만 태평양 연안 쪽 도시가 크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까운 현장에서 달려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이제 사방에서 안전지대는 없다고 소리치는 현실 세계에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봄내의 성시 가족 모든 분께 피란처 되시는 우리 주님의 평강을 기도하며…샬롬!

글 / 김금찬 선교사(JDM)

알려드려요

① 춘천홀리클럽

홀리클럽 정기기도회

· 일시 : 매 짝수달 셋째주 화요일 오전 6:30 · 장소 : 지도 목사님 또은 임원교회 순회 시행 · 회비 : 헌금으로 진행

춘천홀리클럽 카페 많이 이용해주세요.

· 주소 : http://cafe.daum.net/ccholly 또는 다음카페 : 춘천홀리클럽

② 춘천성시합창단 운영

· 정기연습 : 매주 월요일 오후7시 · 장소 : 사랑감리교회 ☎ 010-2529-6193 (단무장 이기영)

③ 춘천성시무용단원 수시모집 (교회 방문수업 가능)

· 대상 : 몸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 일시 : 일주일에 두번 오전반, 저녁반 수업합니다. · 장소 : 후평 2동 796-11번지

☎ 010-9333-8753 (단장 유은경권사) ☎ 010-3180-5330 (지도 김귀선권사)

① 헐몬산악회(기독교동아리)회원 모집

· 일시 : 매주 토요일 100대 명산 및 춘천분지 종주 산행 · 주소 : cafe.daum.net/ccjmm

☎ 010-8798-8782 (정학수 장로)

② 교역자 축구선교회 회원모집 포이맨

·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 장소 : 공지천 잔디구장 ☎ 010-5372-6200 (지용찬 목사)

③ 목회자 족구회원모집

· 일시 : 월~토요일 매일 오전 6시 · 장소 : 공지천 족구장 ☎ 011-361-1995

④ 한마음 조기탁구회

· 일시 : 월~토 매일 아침 6:30부터 · 장소 : 탁구세상(강원대 후문앞 언덕) · 회비 : 월 4만원

☎ 010-3375-4323

⑤ 춘천쏠리데오 사모합창단 수시모집

· 대상 : 목회자 사모 · 장소 : 예강교회 · 자격 : 연령제한 없음, 찬양을 사모하는 분

☎ 010-9947-9631 (회장) ☎ 010-6378-2261 (지휘자)

⑥ 춘천시 목회자 색소폰 동아리 모집

· 대상 : 춘천시내에 계시는 목회자, 초보자 환영. 무료 · 일시 : 매주 월 오후2시~5시 · 장소 : 나눔교회

☎ 010-5521-3779

⑦ 하모니카 찬양 연주반 모집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3시 · 장소 : 춘천드림성결교회(동광길7) · 회비 : 2만원(교재 및 간식비 포함)

☎ 010-3466-5835 백승환목사)

⑧ 교회음악 (찬양대지휘)를 배우고 익히는 스터디 모임

· 시간 : 매주 월요일 오전10시, 오후7시 · 장소 : 봉의고등학교 정문 앞 봄내 피아노1층(후석로 150번길 17-1)

☎ 010-6375-8874

①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중풍,장애등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

☎ 011-366-4972, 033-255-2191 (춘천제일감리교회 탁광희 장로)

② 장수방문요양센터(기관)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제출, 등급판정받기 원하시는 분 ☎ 010-9138-4452, 033-251-4452

③ 춘천 호스피스

사랑과 믿음으로 말기암 환자를 돌봐드립니다. · 대상 : 말기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 033-263-5455(입원상담)

④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무료상담 및 심리치료

· 강사 : 김옥련(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기독교상담 석사과정) · 장소 : 춘천샘솟는장로교회 부설 119상담센터

☎ 070-4383-4720, 010-7567-5012

⑤ 오순절기도원 집회안내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2시 정기집회, 매월 마지막주 월밤~목밤까지 외부강사초청 집회

☎ 033-243-5993/010-8263-0190

⑥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도서관 안내

· 일시 : 월~금, 9시~18시, 토요일 9시~13시 · 장소 :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2층 어린이도서관

· 내용 : 어린이 대상 다양한 도서구비 및 독서 및 기타 프로그램 진행

☎033)254-7244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⑦ 월드비전 누리꿈터(청소년 공부방)

· 내용 : 수준별 학습지도(영어, 수학), 자기주도학습, 진로탐색검사, 진로관련 활동, 문화 활동(영화관람, 대학교탐방 등)

· 일시 : 월~금, 오후17시30분~19시30분 · 장소 :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1층 청소년 공부방 교실

· 대상 : 중학교 1~2학년(저소득 청소년) · 기타 : 귀가 차량운행 실시, 수업료 무료

☎033)254-7244(내선3번)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⑧ 한국기드온 춘천캠프 정기모임

· 내용 : 교회순방, 회원증모, 성경반포 논의

· 일시 :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 장소 : 미가

⑨ 갤러리 오르 초대전 "빛으로 은혜로"

· 일시 : 2016년 5월 2일(월)~6월 27일(월) (Opening 5.16(Mon) PM3:00)

· 장소 : 갤러리 오르 (스무숲 1길 16)

· 문의 : 033-261-0695

· 주최 : 한울섬김교회

♥ 알림 등록 문의 033) 256.1260 / holycc1972@hanmail.net

2016 목회자 국내 순교성지순례



춘천기독교목회자연합회(회장 박찬욱목사)에서는 지난 4월 25~26일까지 "2016 목회자 국내 순교성지순례" 행사를 진행하였다. 목회자들의 아름다운 협조로 모든 일정이 매우 정교하고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증도에 있는 문준경전도사 순교기념관과 영광에 있는 한국교회사에서 가장 많은 77인의 순교자가 발생한 염산교회, 그리고 10분 거리에 있는 65명교인 전체가 순교를 당한 야월교회를 방문했다. 이들의 순교는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발생되었기에 그들의 순교의 의미가 두드러졌다. 피할 수 있었지만, 십자가를 지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채우기 위한 그들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순교로 승화 되었다. 그리고 교회와 유족들이 보여준 태도는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웠다. 유족들도 모두 진정 살아있는 순교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원수를 갚았다. "우리는 천국 간다!"는 분명한 부활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2016 목회자 국내 순교성지순례"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본다.

취재/사진 정덕현 목사 (춘천기독교목회자연합회 총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기도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김창환 이사장)에서는 4월 8일(금) 저녁8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목사)에서 가졌다. 춘천교회가 연합하여 철야기도회로 모였는데 교회를 가득 메운 성도들은 특별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가득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순복음춘천교회 찬양팀의 찬양과 차덕수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장, 강원침례교회)의 사회, 황병호장로(홀리클럽회장, 제일장로교회)의 대표기도, 강사이신 김승규장로(전국정원장, 할렐루야교회)의 "우리나라 이슬람 실태와 선교"라는 제목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조영춘목사(부본부장, 예사랑교회 선교목사)의 인도로 합심기도회가 있었고, 이수형목사(부이사장, 순복음춘천교회)의 헌금기도, 정연빈학생(순복음춘천교회 중고등부)의 특송 후, 김창환목사(이사장, 온누리교회)의 축도로 특별기도회를 마쳤다.

MCF 조찬기도회



춘천시 교회와 군교회가 함께하는 MCF 조찬기도회가 4월 9일(토) 오전7시 제2공병여단 성문군인교회에서 있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허원희목사(공병여단 성문교회)의 사회, 권영호안수집사(2군단 참모장)의 대표기도, 공병여단 MCF회원의 특송에 이어 차덕수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장, 강원침례교회)의 "기도로 하나님을 이긴 사람(창세기 32장22~28절)"이란 제목의 말씀선포가 있었다. 이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승구목사(목회자연합회 서기, 삼천동교회), "MCF의 활성화와 군복음화를 위하여" 박용배목사(군선교연합회 사무국장, 불기둥교회), "부대의 건승과 장병들의 안전을 위하여" 오의석목사(춘기연 총무, 강기총 사무총장, 순복음조은교회)의 인도로 합심기도가 있었다. 정덕현목사(목회자연합회 총무, 푸른초장교회)의 특별찬양과 이경수장로(순복음춘천교회)의 특별연주가 있었고, 이수형목사(군선교연합회 이사장, 순복음춘천교회)의 인사말씀과 MCF 기도문으로 기도한 후, 박상칠목사(군선교연회장, 신성감리교회)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치고, 성문교회 여전도회의 섬김으로 조찬을 나누었다. 5월 군단연합 MCF 조찬기도회는 연합찬양제로 갖게 된다.

화요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4시 주향교회 세미나 실에서 통일기도모임을 갖고 있다. 춘천 쥬빌리와 춘천통일광장 기도회가 연합하여 갖는 이 기도모임은 10여년전부터 가졌던 중보기도모임 통일나눔터를 이어 지속되고 있는 통일기도모임이다. 특별히 4월 19일(화) 모임에는 쥬빌리52차 강사이신 박상원목사와 "통일대박"의 저자 신창민박사께서 함께 하여 통일을 전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말씀 나눔으로 뜨거운 기도시간을 가졌다.

통일광장기도회



춘천통일광장기도회가 4월 25일(월) 저녁8시 거성교회(김수복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강사에는 마이클 리 박사(미국CIA40년 근무)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급변하고 있는 북한정세에 대한 예리한 분별력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지를 전해주셨다.

취재/사진 이은정 기자

Community Bible Study International
Everyone in the World ··· in the Word

제15차

자기 주도적, 깊이 있는 공동체 성경공부를 소개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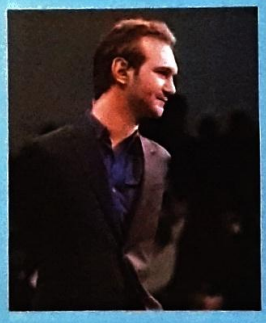
CBSI 한국 세미나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제자 훈련 이후 성경공부를 고민하며
공동체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목회를 계획하는 목회자, 교역자, 신학생,
평신도 지도자, 선교사, 직장 신우회 지도자들을 우선 초대합니다.



Joni Eareckson Tada
(하반신이 마비된 수영 선수에서
세계적인 희망 사역자로 살아가는)

"제 삶을 변화시키고
제 사역과 함께 하고 있는
깊이 있는 CBSI 성경공부를
추천합니다"



Nick Vujicic

"나에게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함께하는
CBSI와 같은
성경공부 프로그램으로
양육되길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일시
2016년 5월 30일 (월) 10:00am - 4:00pm

장소
영광교회 (담임목사 김변호)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30 (자양동 222-11) / 홈페이지 : www.gloryman.kr

오시는 길 안내 (문의 : 02-3437-1003)
대중교통 전철 2호선 구의역 4번 출구 자양사거리 지나 500m 직진
버스 3220번, 2412번 : 자양 초등학교 하차

등록 및 문의 (접수는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등록비 1만원 (선착순 100명), 현장 및 100명 이후 등록비 2만원
점심, 세미나 교재 무료 제공 (세미나 수료자 CBSI 교재 평생 무료 제공)
전화 : 033) 261-0695 (CBSI 본부 사무실)
이메일 : koreacbsi@gmail.com / 홈페이지 : www.koreacbsi.wix.com/koreacbsi



사암교회 신축 및 구 상가 건물 임대 안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10년
동안의 거두리 시대를 마감하고,
예배당을 신축하여 사암교회의 원래 고향인
사암리 전원 지역로 돌아갑니다(8월 예정).
이에 기존 사용건물의
임대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전 시기/ 2016년 8월 1일 (입주 가능시기)

임대 건물/ 주소: 춘천 순환로 72번길 16 (동내면 거두리933-6번지)

건물: 상가 3,4층 (층당 54평. 복도평수 포함. 엘리베이터 있음. 단독 화장실 있음)

임대 조건/ 상담요함 (문의전화 010-6297-2644. 먼저 문자상담 요망. 1개 층씩 임대 가능)

기타/ 거두리 부영아파트, 초록지붕아파트, 삼익아파트, 신도브래뉴 등 아파트 밀집지역 상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암교회**

담임목사/ 최상도 전도사/ 김진솔 교육간사/ 백종진

원로장로/ 송응남 시무장로/ 송응광 최명용 현재용 김주식

개인

강옥자 고순덕 곽해옥 권영일 권영자 권혁자 김관수 김기선 김명자 김미경 김복심 김복자 김상욱 김성희 김숙희 김순덕 김연숙 김영관 김영명 김영태 김영희 김은주 김은철 김은희 김재홍 김정미 김정혜 김종익 김종찬 김지영 김춘화 김혜숙 김현철 김화분 문현숙 민경원 민병임 박갑출 박경미 박금화 박노향 박덕남 박동환 박만규 박명관 박명선 박민수 박순배 박완영 박찬옥 박평숙 박필상 박혜성 배진철 배혜영 서묘석 서성진 성숙자 성화숙 손임순 송갑수 송영인 송향순 신미연 신성균 신옥자 심상만 심효선 안순연 안현주 어금옥 엄근혜 연송흠 연정화 염은희 오순자 오흥금 오흥수 원유미 원희정 유 근 유근창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용균 유재란 유재형 유정순 유정희 윤성자 윤애자 윤은옥 이갑용 이광필 이규현 이명선 이명숙 이명순 이명화 이무식 이문희 이미경 이병일 이상만 이성숙 이승희 이연화 이영애 이영준 이영진 이용숙 이윤규 이은경 이은준 이주영 이진주 이태우 임덕수 임재철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창순 전천일 정구영 정국환 정규시 정성옥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종승 정진호 정치웅 조경대 조기숙 조남진 조돈산 조명숙 조명호 조소현 주명호 주신자 지윤성 차재옥 최귀숙 최선이 최옥순 최은희 최종대 최종인 탁광희 표복순 한순수 한영수 한정연 함종현 허순영 허안영 현재용 홍기택 홍순복 홍은숙 홍인숙 홍택기 황기현 황병찬 황병호 황은주

춘천성시운동본부 후원에
동참해주시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 후원계좌 안내 〉

신협 (춘천성시화운동본부)
131-005-937566

농협 (춘천성시화운동본부)
172242-51-085114

교회

갈릴리교회 강원침례교회 광염교회 거성교회 그말씀교회 나눔성결교회 나눔과섬김교회 늘사랑교회 동신교회 산천무지개교회 사랑의교회 사랑의침례교회 사암교회 석사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시온성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신북성결교회 신성교회 옥산포교회 온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예담교회 예수촌교회 제일장로교회 주의숲교회 주향교회 축복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감리교회 춘천석사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신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침례교회 새춘천교회 한빛교회 한울섬김교회 화목교회 효자교회 후평제일교회

단체 및 기업

베드로선교센타 영광한의원 JDM 아가갤러리 행복재가요양기관 춘천와이신협 매일관광 성시무용단 월드비전 건사연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터를 소개합니다!

강원대학교병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 말기암 환자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 및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말기 암 환자의 존엄성과 편안함을 제공하여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전인적 돌봄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완화의료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의 마지막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서비스

치료 대상자

- 수술, 항암 및 방사선요법에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
- 통증 및 증상완화가 필요한 환자
- 주치의가 완화의료적 치료를 추천하는 환자

입원 절차

입원환자 (담당의사와 상의) → 완화의료팀 협진 의뢰

외래 환자 → 혈액종양내과 외래 진료

완화의료팀 협진 의뢰 → 완화의료상담 및 이용안내 ← 혈액종양내과 외래 진료

완화의료상담 및 이용안내 → 환자 및 보호자 (동의, 전산등록) → 입원 결정

특화된 서비스

신체적 돌봄
통증 및 증상조절, 기본간호, 목욕, 스트레칭 체조, 아로마 마사지

영적 돌봄
기도, 상담, 종교별 원목자 연결

사회 경제적 돌봄
전담사회복지사 상담 및 서비스 자원연계

심리 정서적 돌봄
원예, 미술, 다도, 가족교육, 영화상영, 음악회

제21회 음악과 강연의 밤

강균성 토크 콘서트

|일시|2016년 5월 17일 저녁 7시|장소|백령아트센터|입장료 무료|



|주최|강원대 기독교수선교회|주관|기독교 선교단체 연합|문의|010-6273-2071